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받아오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 매마른 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20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1월 1일 (신년호) 제 1904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발행인 칼럼

새로운 물결(New Wave)

2023년 새해 한 동안을 뜨겁게 달궀 영화, '아바타 2'는 그 제목이 '물의 길'이다. '물의 길'을 물결(wave)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역사에 혁명적인 wave, 물결이 몇 차례 있었다. 익히 아는 대로 그 첫 번째 물결은 농업혁명이었다. 이 물결은 단순한 수렵 또는 채집사회에서 본격적 문명의 시대를 도래케 한 혁명이었다. 두 번째 물결은 산업혁명이었다. 이 물결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 사회를 만들었고 모든 것들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세 번째 물결은 일찍이 앨빈 토플러가 갈파한 대로 정보혁명이다. 이 혁명에는 다양한 지식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네 번째 물결이라면 모든 현실 세계를 넘어선 가상(假想) 혁명이라 할 수 있겠다. 앞서 언급한 영화 '아바타 2'도 이미 시작된 제4의 물결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를 흔든 물결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런 물결들로는 인류의 진정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어느 정도 관심을 끌지만,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못한다.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야 한다. 인류를 살릴 물결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물

결이 무엇일까?

수년 전 '자유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의미심장한 구절을 학교 표어로 내세운 서부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자유의 바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지성의 바람일 수 있다. 1891년 개교한 스탠퍼드 대학은 다른 명문 사학에 비해 해 역사가 짧으나 학문적 영향력은 대단하다. 참혹하게도 그 바람은 지옥의 바람일 수도 있다. 학교 박물관 입구에 커다란 미술품이 있었다. 그 작품의 제목은 '지옥의 문'이었다. 로맹의 작품이었다. 그 작품은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수많은 사람의 조각이 그 생각하는 사람 주변에 있었다. 괴로운지 뒤틀려 있었고, 수치스러운지 머리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조각은 스스로 한심한지 후회의 표정도 역력히 몰아치는 지옥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진리의 바람도 불었다. 박물관 옆에 학교 교회가 있었다. 가장 중앙에 가장 좋은 곳에 자리 잡은 교회는 지성과 지옥의 바람을 잠재울 진

리의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진리가 이 시대의 새로운 물결이 되어야 한다.

진리의 혁명, 진리의 물결은 곧 예수 혁명이다. 그것이 무슨 새로운 물결이냐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지만 2000년 전의 예수님 만이 언제나 현재이자 또 미래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오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없이 그들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 오늘의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설교, 예수님이 없는 찬양, 예수님이 없는 기도, 예수님이 없는 선교, 예수님이 없는 신앙 교육,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천 행사와 모임,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사업, 예수님이 없는 2023년. 이 무슨 비극인가.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면서 맞이한 피폐한 2023년도에 가장 절실한 것은 새로운 사상도 아니고 새로운 유행도 아니라 새로운 물결이다.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말자. 그동안 일어났던 물결들을 겪으면서 그 한계를 여실히 엿보지 않았는가. 새로운 물결이란 새 일을 행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하실 예수님 외에 달리 없다.

예수님 물결에 부딪힌 모든 사람은 새로워졌기에 예수님은 2023년도에도 여전히 새로운 물결이시다. 모든 물결은 작게 시작된다. 그러나 점차 확장되면서 마침내 그 놀라운 위력이 나타난다. 새해라고 다른 것에 들뜨지 말고 예수님이 일으키실 새해의 작은 물결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그 새로운 물결이 예수님이시기만 한다면 마침내 가정을 크게 회복시키고,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살아야만 한다.

신년 축시

2023년 새로운 길에 들어서다

사라진 달력 위 숫자
오늘 아침 수북이 쌓여있다
기적이다
지나온 길에 그림자는 늘 흔적으로 남는다



백승철

그 숫자 사이에 길이 있다
한 걸음씩 단던 길을 만들고
다시 뒤돌아 갈 수 없는 그 길 앞으로
갈게 늘어진 자동차 숲길에도
다다를 끝 길 있듯

거두어지지 않을 것처럼 힘겨웠던 것들로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끝은 아직 같길 멀다
한 걸음만 더 하루만 더
날선 하루를 다시 조각해야 할 아침이다
여전히 태양은 동쪽 하늘 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서쪽 하늘 밑으로 숨을 것이다

가만히 하루를 열어놓은 풍경에는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다
더딘 걸음이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다시 채워야 할
언제나 새로운, 그 길에 들어서다

백승철 시인은

[사모하는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이며 문학평론가, [URE] 교수, [에피포도예술과문학] 대표이다. 시집으로 [모순] 외, [기도] [문학의 정서와 성경] 외, [에피포도수상집 13권] 등 25여권의 저서가 있다.



시론 이동진 목사



신년특집설교 홍규표 목사



NewWave 새로운 물결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가독교서적센터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Sharing Bread for Soul (SBS) 월드쉐어USA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본부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왕)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제28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운다

CALLED TO AWAKEN THE LAITY
2023년 4월 24일(월) - 4월 29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강사 오정현 목사 (서울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미주 국제제자훈련원 대표이사)

등록비 조기등록할인(3월 12일까지): \$420
일반등록비: \$475

대상 담임목회자 및 칼세미나를 이미 수료한 담임목회자와 동역하는 부교역자
선교사 및 기관 단체장

등록 온라인: DMI.SARANG.COM
문의전화: 714.635.3000

주최 남가주사랑의교회 (Se-Rang Community Church) 국제제자훈련원





시론

트렌드 속에서 브랜드를 뛰어넘는 교회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언제나처럼 한 해가 저무는 시간 앞에서 있는 마지막 주간이다. 제야의 종은 울릴 것이고, 사람들은 카운트다운과 함께 새해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와 정치적 이슈들은 기대보다는 불안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진단도 희망보다는 염려로 덮여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사실 역사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올라탄 세대와 세대의 연결을 따라 이어져 내려왔다. 그렇게 흐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올해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이다.

물론 추위에 강한 특징을 보인 네안데르탈인은 방하기 중에도 사냥을 하며 자신들만의 생존방식을 찾아 살아낸 똑똑하고 인내심이 강한 '고인류, 원시인류'였는데, 온전한 언어가 없었는데도 하이에나 같은 포식자보다 위에 있는 사냥꾼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정말 강한 존재인가? 그러나, 인류학에서 네안데르탈인은 '멸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라졌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등장한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는 1758년 칼 폰 린네가 고안한 이름으로 사실상 현존하는 인류의 조상을 뜻한다. 네안데르탈인과는 달리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뿐 아니라 사회를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사는' 생명체인 호모 인종은 강하고 슬기로운 존재인가?

오늘 우리는 한 인간으로 한 해가 저무는 자리에 서 있다. 인간(human)과 인류(mankind)로 나누어 쓰면서도 혼용해 쓰는 지칭의 대상인 '사람'인 우리가 여기 서 있다. 수천 년이 넘게 매년 이런 자리에 서 온 '한국인간'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와 자리 잡아 최고강대국의 자부심을 갖고 사는 '미국인간'은 다르지 않다. 유럽인간, 오세아니아나 인간, 남미인간... 나아가 이제 태어난 인간이나 나이든 인간이나 누구에게나 한 해가 지나는 이 자리는 동일하게 인간을 대한다.

그런데, 특히 한국이나 일본에서 요즘 인간(닝겐)이라는 단어는 대개 상대를 낮추어 알잡아 일컫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한 인격체로서 지칭하거나 존중의 의미를 담은 '사람'이라는 단어로 불릴 때 훨씬 더 고맙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한 사람'으로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자리에 생각하며, 느끼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더욱 그렇다.

팬데믹 3년차들이나 교회는 요즘 조바심에 빠져든 것 같다. '교회가 줄었다.', '젊은이, 어린이가 사라졌다.', '미세가 없다',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회의 미래'... 오래전부터 다루어지고 내세우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주제와 제목들을 가지고 열려지는 세미나들과 통계 결과들이 교회에 제시되고 있다. 물론 목회자들은 또 한 해 다가올 매주 매일이 걱정된다. 그리고 내일의 교회도 걱정된다. 그래서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보고, 세미나에 참석해보고, 어디 누구 없냐고 전문가를 찾아본다. 어떻게 해야 할까?

송구영신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내년 한 해의 목회 현상이 걱정되는 교회들이 찾아낸 연구 데이터와 안내서와 논문들은 교회를 안심시킬 수 있을까? 그러나, 자세히 보자 '트렌드'라는 틀 안에서 제안된 방법들을 사용하면 드디어 현실적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트렌드를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트렌드(trend)의 우리말은 유행(流行)으로 '한 사회의 어느 시점에서 특정 생각, 표현방식, 제품 등이 그 사회에 침투 또는 확산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상태'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트렌드에 예민한 것은 모든 디자이너의 공통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브랜드를 창출하는 디자이너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트렌드를 창조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신년목회계획,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공부하고 연구해서 경험에 비추어보며 내놓는 새해 각 교회의 목회현상이 돋보이는 어떤 브랜드를 따라가는 목회자 아니라, 똑같은 말로 수천 년을 내려온 성경이 어느날 누군가의 가슴에서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것일지라도 새해 어느 교회에서든 생명이 탄생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으로 들려오게 되기를 기대한다.

djlee7777@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4,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불확실한 미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코노미스트, 톰스탠디지 편집장이 선정한 '2023 세계 전망' 소개

전염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물가는 치솟는다. 유럽에서는 전쟁이 진행 중이고 경제지표는 위기를 알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했던 2022년이 마무리되면서 내년에 관한 정확한 전망이 간절할 때다.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11월부터 디지털판을 통해 '더 월드 어헤드(The World Ahead)' 시리즈를 공개한다. 올해

역시 '더 월드어헤드 2023'을 통해 100페이지가 넘는 글로벌 테마를 선정해 공개했다. 이 중 이코노미스트 편집장 톰 스탠디지가 꼽은 '픽(Tom's Top10)'을 중심으로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을 살펴본다(The Economist's predictive look to 2023 with Tom Standage).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먼저 러시아가 승리를 낚아채는 시나리오다. 러시아군은 겨울 동안 전선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병력을 꾸릴 수 있다. 유럽의 지원물자가 바닥나고 미국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민주당과 달리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새로운 무기들을 차단할 수 있다.

그렇게 2023년 봄이 됐을 때 새롭게 꾸려진 러시아 부대는 공격을 개시하고 수개월간의 공세에 지친 우크라이나 군을 뒤로 후퇴시킨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와 수자원 인프라도 계속 파괴한다. 헤르손 북쪽의 산업도시인 크리비리크와 도네츠크의 슬로비안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도 점령한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다.

이코노미스트가 제시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교착상태다. 러시아는 지난 11월 헤르손에서 철수를 선언한 뒤 드니프로강 서안에 있던 3만여명의 병력을 안전하게 철수시켰다.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승리지만 궁극적으로는 러시아가 더 강력한 군사적 위치에 있게 됐다. 강은 러시아의 왼쪽 측면을 보호하기 때문이다"라고 본다.

푸틴은 시간 끌기에 나선다. 우크라이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해 사기를 떨어뜨리며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의 파트너들이 지칠 정도로 전쟁 연장을 꾀한다. 그동안 유럽은 가스 저장소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고 겨울에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을 탈환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기를 기대하며 2024년 말까지 버티기를 목표로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무적이지만 위험한 시나리오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HIMAR 로켓을 크렘린도 사정권 안에 들여놓을 경우다. 우크라이나가 세베로도네츠크를 탈환한 뒤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루한스크의 러시아군 방어진이 붕괴된다. 이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포리자에 새로운 전선을 만들라고 명령하면서 5개 여단이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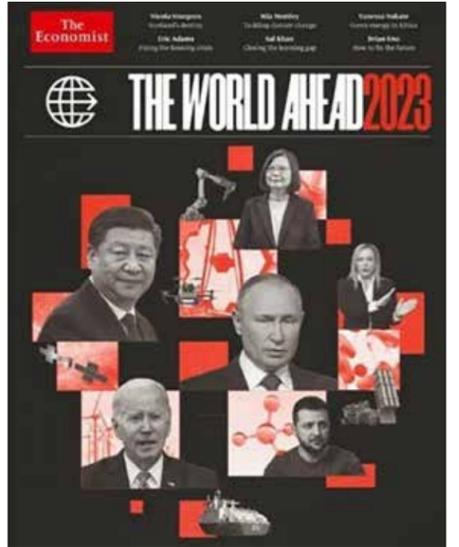
아군의 전선을 뚫은 뒤 크렘린도로 가는 육교를 끊고 여름까지 마리우폴을 포위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크렘린의 항구와 기지 등을 겨냥해 HIMAR 로켓포를 남쪽으로 이동시키며 크렘린에 진입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러면 푸틴도 최후통첩을 한다. 핵무기 사용을 포기하거나 실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본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는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본다. 출마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행사-민사 소송에 불리해지고 열렬한 지지자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간선거 결과는 다시 한번 트럼프가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단 (공화당 내) 트럼프의 잠재적 경선 상대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일부는 보다 온화한 글렌 버지니아 주지사에게 기대를 걸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 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에게 의지하게 된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를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트럼프 입장에서 경선 과정에서 반트럼프 진영이 많을수록 좋다. 그들의 표가 흩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 낮은 지지율 때문에 불출마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면 다른 민주당원들이 대거 여기에 합류할 것"이라고 봤다. 물론 바이든도 트럼프처럼 계속 경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지난 미 대선처럼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두 고령



의 후보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이 또 생길지 모른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인구에 주목했다. 유엔은 2023년 4월 14일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다. 이날 인도의 인구는 14억2577만5850명이 될 것이라고 유엔은 본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는 인도보다 6배 정도 크지만, 인도의 증가하는 인구는 중국 따라잡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도는 지금부터 2050년까지 전 세계 노동인구(15-64세)의 6분의1 이상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 두 나라에 20세기에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했는데 중국은 '더 나중에, 더 오래, 더 적게' 캠페인을 벌였다.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들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 숫자도 적다. 영국의 인구학자 팀 다이스는 "1980년에 도입된 '한 자녀 정책'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정책을 평가한다.

반면 인도의 출산율 감소 시도는 중국보다 덜 성공적이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인도 인구의 중간연령은 28세다. 노동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도는 이제 배당받을 기회가 왔다. 다만 인도의 번영은 젊은이들의 생산성에 달려 있는데 이걸 중국만큼 높지 않다. 25세 이상의 중국인들은 같은 연령의 인도인들보다 평균적으로 1.5년 더 길게 교육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15면으로 계속)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청빙

MA주 FEEDING HILLS에 위치한 하나님의 성회(AG)소속 갈보리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현 목사님을 이어 후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요건

- 나이: 40세 부터 50세 까지
경력: 이민목회 3년이상(부목사 경력 포함)
교단: 본 교단 목사 및 타 교단 목사는 하나님의 성회(AG)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언어: 2중 언어(한국어와 영어)소통이 가능한 분
신분: 미국 거주에 결격 사항이 없는 분으로 영주권 후원도 가능
학력: M.Div.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분

제출서류

- 이력서(본인 및 가족 사진 첨부)1부
본인 및 사모의 자기 소개서 각 1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1부
추천서 2부(응시자가 담임 목사일 경우 교단 및 지방회, 부목사일 경우 담임 목사와 그외 1인)추천인이 연락처 기재하고 직접 제출
주부 2회분(현 시무 교회 최근 3개월 이내)
개인 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1부

제출 마감일: 2023년 2월 28일

제출 및 문의

제출 및 문의: E-MAIL(cavaryassembly2023@gmail.com)로 받습니다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담임목사 청빙용으로만 사용하며 청빙 완료 후 폐기됩니다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교회 (Calvary Assembly of God)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Langone Health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 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시편 1:3은 복된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 따르면 복된 삶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착박한 땅에 있는 수로를 뜻합니다.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싶을 때, 그들은 그 땅으로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를 통해 계속 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주변 조건이나 형편이 척박하고 어렵지만, 수로를 통해 계속 공급받는 물 때문에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나무입니다. 복 있는 삶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막같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과 지혜와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는 사막에서 있는 나무같이 되는 것입니다.

2.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인”이라는 단어는 살인자, 도둑, 사기꾼 등의 범죄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신 목적을 놓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삶을 위해 주신 목적은 삶을 통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성취하든 그의 삶은 근본 목적이 빛나고 헛되이 끝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롬 1:24-32). 그러므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오만한 자들”이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 중에는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부자, 권력자,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마치 하나

겨처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6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자들의 삶의 길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오직 여호와와 울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

런데 그 남자가 그녀가 한때 읽다가 그만두고 치워 둔 책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였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가 책의 저자를 알고 사랑했을 때 그가 쓴 책을 기쁨으로 다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쓰신 책인 성경을 억지로,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5:3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심령에 닿을 때까지 묵상을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을 수 없는 날이 있다면 다음 날 다시 시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당신의 실제 삶의 상황에 지속적으로 연결하십시오. 당신의 생각, 결정,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권면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삶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이해하고 대처하십시오. 또한 다른 신자들과 말씀 묵상을 나누십시오. 다른 신자들과 묵상한 말씀을 나누면 말씀이 더 풍성하게 은혜가 됩니다. 음식을 혼자 먹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 더 풍성하고 맛있게 먹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혹 혼자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주관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이해한 것들을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하십시오.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요 5:39).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셔서 모든 말씀을 이론으로서만 아니라 실제 삶으로 나타내시고 완성 하셨습니다(요 1:1-18). 또한 예수님은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요 15:1-14). 그러므로 어떤 말씀을 묵상하든지 그 말씀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연결해서 묵상하고, 결론을 내리고, 마음에 새기고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 삶에서 환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모든 축복, 마음의 평안, 기쁨, 용기, 소망, 지혜, 인내 등을 당신의 삶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질의 공급, 인간관계의 회복과 기쁨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esfcross@yahoo.com

신년 특별 설교



홍규표 목사 (KAPC 총회장, 시카고다민족교회)

복 있는 사람 본문: 시편 1:1-6

1.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인”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과 지혜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조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조연을 따르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과 조연도 필요한 경우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질병, 결혼 생활의 위기, 정신적, 영적 방향, 죽음의 문제 같은 우리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환난이 닥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연에는 힘과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조연을 따르면 우리는

1:21-23에서 그런 사람의 삶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여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좋은 목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들은 결국 다른 것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은 결국 부도덕과 부패로 끝날 것입니다

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이 더 위대한 것처럼 행세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힘과 성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삶이 육신과 이 세상에서 얻고 이룰 수 있는 것만을 위해 사는 삶의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인생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영이 죽어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곤고하고 심령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힘과 자원, 노력,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을 때 그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가벼운

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의 편지로 여기면 즐거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편지라면 누구나 기쁨으로 흥분되어 읽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것으로 대하는 기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시 119:103). 한때 젊은 아가씨가 책 한 권을 집어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책이 너무 지루하고 어려워 조금 읽다가 치워 두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 데이트하기 시작했고 그를 매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것이 아니로다.” 말씀을 기쁨으로 읽고 묵상하고 따르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자원을 늘 풍성하게 부여주십니다. 이러한 삶이 복된 것입니다.

2. 여호와와 울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비유적 단어입니다. 그것은 소가 먹이를 되새김질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소는 음식을 먹을 때 한 번 씹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소는 풀이 아침 이슬로 신선할 때 씹어 먹습니다. 그 후 한낮에 더워지면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첫 번째 씹어 넘긴 음식물을 입으로 꺼내 와서 다시 씹어 넘김



평강교회 이·취임식

평강교회 설립 42주년을 기념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상기 목사님을 원로목사님으로 추대**하며, **제2대 담임 송금관 목사님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이상기 원로목사



제2대 담임 송금관 목사

■ 일시 : 2023년 1월 8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 606 El Centro Street South Pasadena, CA 91030
 Tel. (818)915-0702 (213)393-9136
 * 축하 화환 및 꽃다발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영리한 토끼가 필요한 시대!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

(뉴욕양리장로교회)



다사다난했던 임인년 호랑이가 가고 계묘년 영리한 토끼띠가 되었습니다. 되돌아본 지난해는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전쟁의 공포, 기후의 변화 그리고 우리 삶의 주머니까지 온통 어려움뿐이었습니다. 부디 2023년에는 예수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로 마음이나마 넉넉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독자들에게 이제는 꿈과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주 전역에 흩어져 살고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는 변해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희망과 능동적 도전정신으로 세계를 향해 영리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고 앞으로 무엇을 계획해야 하는지를 살피서 영리하게 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약함이 아니라 정직한 영리함을 의미합니다. 잔꾀로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정직하게 영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제는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전문성이 아니라 영적 전문성이 필요한 때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영적 혼탁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이 무너져 내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이 필요에 따라 변질되었고 기도도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절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영적 혼란에서 영리하게 빠져 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작은 등불로 희망의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나간 모든 어려운 문제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영리함을 원하십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질 것이며 계묘년에 변화하여 영적 전문가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오리로다”(시 11:7). Happy New Year!

“결단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백운영 목사

(필라 영생장로교회)



새해가 밝았습니다. Happy New Year!! 미주크리스천신문은 북미주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귀한 믿음의 지표 역할을 오랫동안 했기에 항상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미주 한인교회를 신앙으로 하나로 엮어내는 귀한 매개체를 넘어서 나아가 할 방향도 제시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신앙의 도전도 주시기에 올해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거나 신년 특별기도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런 신년의 첫 기도회는 ‘우리 모두에게 한해를 영적으로 힘차게 준비하게 하고 이번 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 년 내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지만, 신년에 드리는 기도는 더 간절한 마음이 담기기에 그만큼 더 뜨거워집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기쁨으로 힘차게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팬데믹을 지나면서 말씀 읽는 습관과 기도를 배웠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려 더 유익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영생 장로교회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매일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고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9시에 모든 교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직장과 학교 모두 집에서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을 받았기에 저녁에 드리는 가정예배가 우리 가족을 살렸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전도회 헌신예배, VBS, 해외 및 국내 단기선교, 전가족 수양회, 41주년 기념 메시야 음악회, 찬양 축제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성탄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예배가 다시 활발해졌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귀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올해도 여러분은 새해부터 다양한 결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보다 크시며 권능이 많으십니다. 그분과 매일 교제로 2023년도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시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뉴저지실버선교회 대표 양춘길 목사

(필그림선교회)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면서 뉴노멀(New Normal)의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을 삶의 여러 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와 함께 위기감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권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합시다. 만물의 주관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먼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며, 기도의 응답이 영육간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맘 흘려 수고하는 일터에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한 해”

뉴저지교협회장 박근재 목사

(시나브로교회)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어김없이 맞이하는 새해이긴 하지만, 올해는 지난 몇 년간의 암울했던 팬데믹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그동안 인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종교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 곳곳에서 공포감과 위기감과 불안감이 세상을 움츠러들게 했지만,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새해의 첫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새 가치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시작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 ‘세월이 빠르다’는 말은, ‘시간이 빠르다’는 말과 같고 ‘시간이 빠르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는 말과 같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가까이 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 가까이 오면, 그날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해 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계 21:4). 따라서,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이 작년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시작합시다!

두 번째, 세월이 지나면서 육신은 점점 노쇠해 갑니다. 온몸의 기운과 기력이 사라지고, 얼굴에는 주름도 많아지고, 몸 안에 장기는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언변이 어눌해지고 기억력과 정신력이 쇠퇴해집니다. 올해도 육신은 분명히 작년에 비해 더욱 더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걸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남아있긴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고후 4:16). 따라서,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속사람은 더욱 더 새로워질 것이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시작합시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야 합니다(빌 2:12).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올해도 어김없이 실천해야 할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역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막 14:38) 실패로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롬 8:34),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것입니다(롬 8:26). 따라서,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올해도 우리의 성화를 위해 간구하실 것이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시작합시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세월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흐르겠지만,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고통이 없어지는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에 용기를 갖고 감사하면서 새해에도 힘차고 활기차게 사십시다! 살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삶의 혁신

KAPC 뉴욕노회장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해 아래에서의 세상에 새 것은 없지만, 해 위의 나라만큼은 새 것으로 충만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해 아래에서 살지만, 해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은 가장 어린 나이에 제일 먼저 세 가지를 집중해서 체득하게 했습니다. 먼저는 ‘쉐마’라고 일컫는 신명기 6장 4-9절을 통해서 그들은 일생에 걸쳐 살아갈 삶의 내용을 매일 어디서나 배우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사랑하되, 그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배움으로 마침내 몸으로 체득하여 나타내고, 둘째로는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에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아, 해 위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므로 인생의 본분과 목적에 충실하여 해 위에 계신 분을 닮아가게 하며, 마지막으로는 레위기 19:18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익히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살아내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삶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해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거룩하심을 닮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생명과 같은 시간인 2023년에도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애독하시는 독자 모든 분들께서 더욱 더 하나님 사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존전에서 살아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높은 산의 굴곡과 험한 바다의 풍파라는 장애를 직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 중심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아버지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맡겨주신 일들을 나타내고 감당할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는 넉넉히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 올 수 있는 거친 비바람을 극복해 내며, 성령으로 쫓아 부여주시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마누엘의 확신을 매 순간 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새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Soli Deo Gloria!

어려움 속에서 큰 기쁨의 증거

필라교협회장 채왕규 목사

(뉴비전교회)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3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으로 인한 심감과 위로와 긍휼함이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신 신실하신 예수그리스도를 소망하는 큰 기쁨의 증거를 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자랑이 되는 교회

뉴욕목사회 회장 김홍석 목사

(뉴욕늘기쁨교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길 소원합니다. 아직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다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까지 With 코로나로 긴장하며 오게 되었는데 바라기는 Beyond 코로나로 교계 전체가 활력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 화목과 화합, 연합과 일치로 정말 교회다운 사역이 펼쳐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2023년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건강만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언제나 평탄한 길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실패와 좌절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모세는 (신 1:30)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때 뉴스를 주십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믿음의 길에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을 하나님의 인도로 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인사회의 이민역사가 말해 주듯이 우리에게는 안정된 세대 교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다음 세대와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우리의 과제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계의 상황은 미래의 준비된 역량보다는 미래 도파적이고 현실 환상적인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정과 불의에 싸우고 정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의가 요구되는 시기가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나 어떤 소망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던 그때에 애굽 왕궁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시며 이스라엘의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염려가 아니라 자랑이요 모델이 되는 교회의 사역으로 큰 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는 자

KAPC 개혁대학 및 신학 대학원 총장 이정현 목사

(실비치 사랑교회)



예수 2023년도를 맞이하여 미주크리스천신문과 구독자들에게 이 한 해에도 평안과 행동을 기원합니다. 미주크리서천신문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혁주의적 신학과 신앙적 측면에서 변함없이 정확하고 풍성한 내용들을 게재하여 명실공히 기독교 미디어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국 목사님과 모든 직원에게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해는 새로운 기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1년이라는 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올해도 국제 사회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며 엄청난 변화와 분쟁과 전쟁이 있으리라 예측해 봅니다. 경제도 어렵고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카타르 월드컵도 끝났습니다. 선수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 생명 걸고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KAPC 개혁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으로서 사명자를 키워내는 일에 전력하고 주어진 목회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 37:5-6 말씀같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역시 구수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는 자로서 열심히 올해도 달려가십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미국이 되기를”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수석공동회장 나성근 목사

(살롱장로교회)



미기총 차기 대표회장으로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미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더욱 단합하고 전진하는 미기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확고한 순교신앙과 청교도 신앙으로 더욱 단합하여 전진하도록 명실상부한 미기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PCA CKC 즉 미국장로교회 한인 교역자 연합회 차기 회장으로서, 진정한 보수 개혁신앙을 지키고 확대하여, 교단, 교계,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며 현 회장님과 함께 이일에 전력하기를 소원합니다. 살롱교회 회장으로, 우선 이곳의 침체된 영적 분위기를 확실하게 반전시키고, 할 수 있는 대로 일년에 두 번이라도 연합 부흥회를 개최함으로, 교회마다 더욱 새로워져서, 교회마다 부흥하고, 단합하여 진정한 연합과 큰 사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 교계와 한인 사회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NCKPC 총회장 김성택 목사

(캘리포니아중앙장로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2년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러시아의 도발로 2차 대전 이후 유럽 대륙의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의 포성이 울린 지도 벌써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수백만의 사람들의 폐허가 된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강제적으로 가족과 헤어져 생사를 모른 채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6.25의 전쟁을 겪은 우리 한민족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고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고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제한 속에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님들은 힘든 세월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팬데믹은 정치 사회적 문화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도 큰 영향을 끼쳐 계층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특히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범죄가 노골화되고 대법화되면서 큰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변화도 허리케인 이안을 비롯한 이상기후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은 흘러간 과거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2023년이 밝았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신실하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역경으로 쓰러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속 사람이 순전하고 강건해지면서 마치 영적 예방주사를 맞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쳐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 10:12). 여러 사건과 삶의 이유로 인하여 잡초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입니다. 묵었던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기경하여 주님 받으실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역지마다 우리 주님께 올려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마치 새롭게 시작하는 초년생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삶의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이런 믿음의 선택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고전 15: 58).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박상근 목사

(세크라멘토 한인장로교회)

존경하는 미주크리스천 애독자 여러분,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난 한 해도 너무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도 엄청난 도전을 받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교회 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들의 신앙이 또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결혼 보호법이 발효되어 동성결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20만이나 되는 동성 가정이 존재하고 많은 교단들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현실적 위기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교회 패러다임의 심각한 변화에 대해서도 총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장 예배의 축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바른 대처가 없으면 교회들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메타버스같은 새로운 예배 형태를 빨리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아 침략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많은 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폴란드에만 100만에 가까운 난민이 몰려왔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총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교회에서도 마음을 모아 이 추운 겨울에 극심한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난민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새롭게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전례 없는 독감의 유행과 새로운 호흡기 바이러스까지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트리플 팬데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디 희망찬 새해를 맞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이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K.A.P.C 세계선교회 이사장 오세운 목사

(세계소망교회)

2023(계묘)년도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미주크리스천 애독자와 각 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 그리고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2022년도를 되돌아보는 것이 지난 세월에 대한 예의이며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소망의 자세일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3년 전의 코로나의 여파는 우리들의 마음 구석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하듯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2023년도 삶에 순종의 눈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뿐 아니라 힘을 주시고 여호와이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창 22장). 우리가 주의 일로 힘들 때 이사벨의 죽음의 협박에 도망하던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셔서 달랠라 길을 가게 하셨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왕상 19장). 2023년도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셔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눅 24장).

주님의 지상명령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는 말씀대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2023년도 새로운 길을 가려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머리카락도 세는 내가 너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말씀으로 새기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약속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전진하여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희망찬 2023년을 맞으면서

PCA-CKC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인승 목사

(새 믿음장로교회)

희망찬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 신문을 읽는 모든 독자들과 미주 모든 한인교회들과 저희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협의회(PCA-CKC)에 소속된 모든 동역자님들과 207개의 모든 한인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비드와 싸우시느라 고생들이 많았지만,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미국 장로교(PCA)는 지난 1973년도 12월에 PCUSA 교단으로부터 신학적인 입장 차이로 분립이 되어서 창립이 된 지 금년에 50주년(희년)을 맞이하게 되어서 새해가 의미가 매우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2023년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멜피스(테네시주)에서 제50차 PCA 총회가 열리게 되며, 같은 기간에 저희 PCA-CKC 제26차 총회 및 수련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CKC 총회는 주제를 “교회의 갱신과 부흥”(The Renewal and Revival of the Church)이라고 정하고 서울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시는 화종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금년 뜻깊은 해에 PCA총회와 저희 CKC 총회에 많은 동역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던 교회가 갱신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뜨겁게 부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서 의견을 서로 기탄없이 말하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 지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쁘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미주 안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과 모든 동역자 목사님들과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SEED International 국제대표 박신욱 목사

예수님은 교회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한 가지 사명과 “서로 사랑하라”는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될 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2023년 새해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어두운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이든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능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 2023년 새해가 어두움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해 보다 새해엔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축복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사명”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이대우 목사

(필라라넷성결교회)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도하며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쓰나미 같이 휩쓸었습니다.

2022년은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해였고, 백신전쟁, 세계 질서, 미중 긴장, 압박받는 기업들, 언택트 문화, 국제이동 감소,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다른 위협에 대한 경고 등 앞으로 인류는 어떤 위협에 먼저 대비해야 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 불황, 전쟁,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장애물이 앞에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집단이 양극단으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 평균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평균은 집단의 기준점이자 대표성을 가집니다. 평균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잡으로 힘겨웠던 지난 한 해였지만 은혜 가운데 이겨 나가게 하고 2023년 새로운 한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타난 현상들을 딛고 일어나 그 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세기 인본주의 사조가 인간 정신 문화를 지배하고, 또한 바이러스 질병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의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여 인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여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변화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삶의 환경이나 경제 분야가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신앙의 참모습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 변화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변화여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여 사랑의 시대를 만들어갈 때 오늘의 삶이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하신 경륜을 믿는 가운데 새로운 한 해 그 첫 발걸음의 힘찬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해’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OC교회협의회 회장 심상은 목사

(갈보리선교회)

2023년 찬란한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 뜨겁게 도전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까지 세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2023년 새해의 위대한 미래도 꿈꾸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며 온 교계와 성도님들께,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6-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가나안의 땅의 길모습만 보지 않았고 믿음으로 본질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하나님의 각도로 바라보았지요.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항상 듣기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는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긴다고 긍정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과 생각과 말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도 미래를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그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이 되셔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묶였던 모든 환경을 깨치고 힘차게 미래를 바라보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 총회 총회장 전모세 목사

(오렌지힐스 한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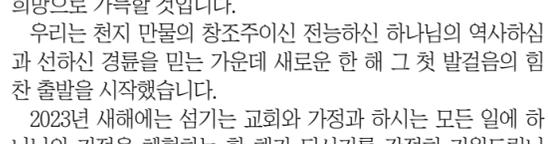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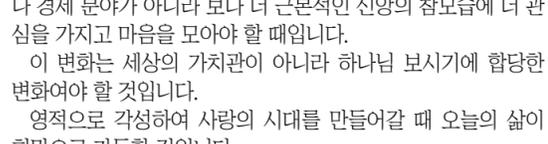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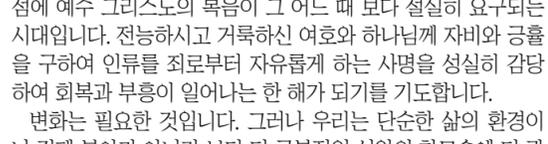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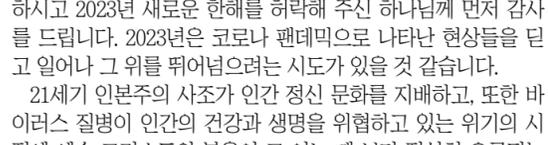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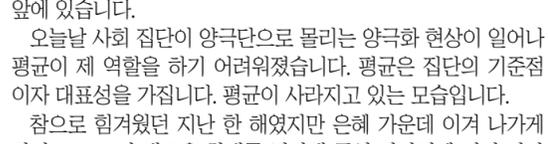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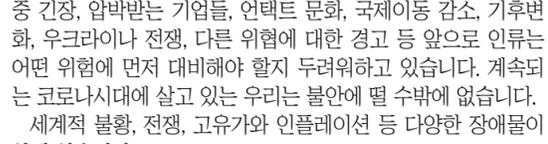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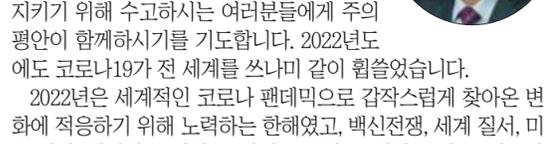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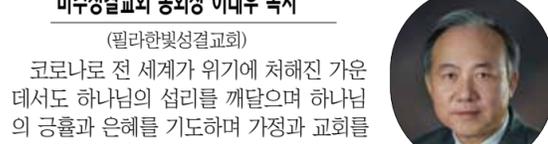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축복된 미국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현실은 신앙적, 윤리적, 도덕적, 쾌락과 문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체성의 혼돈을 겪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2021년 마약으로 사망한 젊은 청소년들이 107,622명 이라고 합니다.(U.S. Department of Justice D.E.A)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때 먼저 주의 종들과 부름 받은 평신도들과 사역은 지역사회의 위기 상황, 자연재해 및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특히 영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삶과 사역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헌신된 평신도들은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눅10:25-37) 밝아 오는 새해에는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 소리도 없이 마귀에 끌려 영과 육이 죽어가는 많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야 할 것이며, 크리니치타티의 위상이 높아져서 해매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에스더 4:14)

새해에는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응원하여, 주님 나라를 확장 시키는 저희 총회와 모든 교회연합회,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하며 2023년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섬기시는 각 교회와 가정에 충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New Wave 새로운 물결” 신학적 접근

반복의 굴레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며 새해의 문을 활짝 연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새해를 맞았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마스크 없는 대면 생활이 가능해졌다. 새해에는 상실했던 과거의 정상적인 삶을 되찾되, 특히 이전보다 더욱 활발한 신앙의 삶을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New Wave - 새 물결'이란 주제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인 듯하다. 한 철학자가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 칭하였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반드시 잊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런 상식적인 주장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확신하는 위협한 전제가 깔려있다. 과연 그런가? 우리는 새해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자연스레 새로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왜 새해를 맞으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헛된 반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전도서 1:9-10)”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새 것이라 여기는 것도 잠시일 뿐, 쉽게 싫증과 권태를 느끼며 또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한다. 새로운 것을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된다는 신념은 매우 인간적인 고집에 불과하다. 새로운 것에 대해 부풀었던 기대감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는 안타까운 고백으로 마치게 된다. 그렇다. 이런 반복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 무신론자들은 당연히 이런 선언에 거부감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는 자들만의 심 없이 받아들인다. 여기서 강조되는 점은, 하나님은 영원히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 라는 것이다. 그는 해 아래 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의 헛된 반복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 43:19).”

새로움 - New

하나님의 창조에는 새롭게 하시는 그의 능력과 지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셨을까? 우리의 죄 때문이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으로 달려가며 살게 되었다. 타락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다. 아무리 굳은 결단과 각오로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도 절대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한계 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와 실망은 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한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정결함을 받았는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적 사역은, 우리는 마음의 변화라는 놀라

는 어려운 상황을 헤치고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가 선택하신 방법은,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하신 것이었다. 거센 물결처럼 선포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앞에, 성도들은 자신의 사악함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 마음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였다.

개인의 변화는 곧 교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교회가 변화하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잘 알려진 바,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회개 운동이 전국 교회로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도덕적 문란으로 유명하던 평양 시가 성도들의 모범적인 삶으로 인해 변화하여,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된 것은 우

성령을 통해 마음에 소원을 새롭게 하신다. 진정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몫이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를 수 없다는 핑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 역사에 반복하여 나타난 상투적 문제이다.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기대와 다른 모습에 대한 반성이 없이 수용하려는 태도이다. 세상에 대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이전 세대에 비해 많이 감소되었다. 기독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부정적이다. 날이 갈수록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지는 만큼, 교회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다. 일반적으로 선교는 비행기를 타고 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만 맞는 말이다. 선교지란 복음이 필요한 곳을 가리킨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21세기 교회의 사명은 초대교회와 다른 것일까? 혹시 교회의 사명을 교세의 확장 또는 교회 수의 확장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기독교의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 기관이다. 교회는 결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에

건강을 해치는 자들이 활동하였다. 초대교회는 이런 위기를 통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지나게 되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어 세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확신을 놓치지 않았다. 그 결과, 381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 그들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던 교회 541년에 이집트교회와 시리아교회가 분리되고, 1054년에는 동방과 서방 교회로 나뉘어졌다. 종교개혁자들은 서방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고 활동하였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하는 사도적 신앙을 회복하려는 큰 꿈이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경계를 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로 숨기고 싶은 과거의 모습은 어땠을까? 당당하게 로마가톨릭교회를 대항하며 싸우는 모습과 함께, 서로를 향해 불신과 논쟁을 통해 결국 각자의 다른 길을 선택하여 걸었다.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생겨난 교단의 역사로 인해, 현재는 모두 서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크고 작은 교단들이 산발적으로 생겨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나 됨

우리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신천지를 포함하여 교회를 허무는 이단 세력, 종교다원주의에 뿌리를 둔 에큐메니칼 운동,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 등은 어떤 형태라도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 한 걸음 나아가서, 숨기고 싶은 과거가 낳은 교단주의에 대한 관심과 심도 있는 성경적, 역사적 관심을 촉구한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분열과 교단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교회 주인의 심정을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 현재 교회가 처한 새로운 선교지에서 교회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하지 않을까?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존 프레임 교수는 ‘Evangelical Reunion’이라는 저서를 통해, 교단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지를 실천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에는 교단주의 옹호자들에게 큰 충격이 될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필자는 프레임 교수의 제안에 깊이 동감하며,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읽어보기를 권장한다.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 그 날이 되면 이 세상에 망가진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그때 주님께 나아가 누가 옳고 틀렸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려는 자가 있을까? 아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공로로 한 가족을 이룬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완성되었음에 서로를 끌어안고 감격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항상 새로운 물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수에 의해 시작됨을 잊지 말자.

covenantcho@yahoo.com

새로운 물결 - 전혀 새롭지 않은 새로운 시도



조진모 목사
전 합동신학교 역사신학 교수

운 증거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진정한 새해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와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것의 출발점이자 열쇠이기 때문이다.

물결 - Wave

파도는 바다 또는 강과 같이 넓은 물에서 바람에 일으켜 이는 물결이다. 또한 특정 사회에서 맹렬한 기세로 일어나는 운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풀러 신학교 선교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 박사가 ‘wave - 파도 또는 물결’이란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그가 20세기 성령운동에 국한하여 3기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마치 거센 물결과 같이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던 영적 운동이 있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 교회를 일깨우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었다. 유럽의 16세기 종교개혁, 미국의 18세기 대각성운동, 그리고 한국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등을 예로 제시할 수 있다.

교회 역사에 나타난 파도와 같은 신앙 운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백성으로 새롭게 서게 하신 것이다. 주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또

리를 모두 놀라게 한다. 실로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다.

현재 우리는 포스트모던과 급격한 세속화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 21세기 교회는 절대적 진리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세상의 풍조를 맞서고 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자율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맞대고 살아야 한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거의 순교적인 각오가 필요하다. 참 어려운 때가 되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강력한 영적 물결을 통해 헤쳐 나갈 수 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온 교회가 겸손하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한다. 또한, 한 마음으로 그가 강한 힘을 지닌 영적 물결을 허락하시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간구하여야 한다.

상투적 문제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바,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위의 서술은 기본 내용에 대한 재확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대단한 포부를 품고 시작된 신앙의 결단이 옹두사미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정한 문제는 구체적 열매를 맺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없이 지적 동의 또는 감정적 갈망 정도에 그치는데 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비판의 소리를 전혀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에 의해 휘둘릴 수도 없다. 도리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지금은 세상을 향해 대항하여 싸우거나, 어떻게 하든지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 그들의 지탄을 막아보려는 노력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교회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므로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다. 그 분 앞에 겸손히 서야 한다. 상투적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새로운 선교지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적이 있다. 불안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을 교회가 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를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교회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 실망을 한 뒤 세상에서 대안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신앙을 경험한 교회는 즉시 성도의 영적 각성과 교회의 수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현재, 교회가 처한 곳이 곧 선교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

게 속하여 한 가족으로 영입되도록 초청하는 사역을 우선 순위에 둔다.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이다. 복음 전파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 이 전쟁은 휴전 없이 진행되며 승리 또는 패배 중에 하나의 결과를 얻을 뿐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뉴 웨이브 - 새로운 물결은 어떤 것일까? 그 동안 각자의 길을 달려온 교회와 교단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분을 함께 깨닫고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숨기고 싶은 과거

모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간주하였다. 중세를 지나면서 로마가톨릭 교회가 사도적 신앙을 지닌 교회의 전통을 파괴하였기에, 그들은 성경에 근거한 개혁을 통해 교회의 참 모습을 되찾으려 한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성도들 간의 시기와 다름, 그리고 분열 등 절대로 배우지 말아야 할 요소들이 있다. 그럼에도 왜 초대교회로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을까?

초대교회는 이단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대항하며 확장되고 성숙하였다. 교회 안과 밖에서 동시에 교회의 영적

“New Wave 새로운 물결” 목회적 접근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론 모든 곳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도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왔고, 그로 인한 물질적 풍요로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물질적 풍요로움과 그에 따른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번성과 풍요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타락과 이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새로운 시작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큰 변화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과 새로운 시작은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렘 6:16) 근본, 기본의 그 자리가 바로 “옛적 길”입니다.

지금의 위치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곳, 그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용주 목사 KVMC 한인세계선교협의회 공동의장, 시리우스한인교회 담임

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부터 너무나 익숙해진 외적인 크기와 부흥, 어느새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세속적인 성공과 재물, 명예와 권력이 주는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옛적 길”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몰랑적인 화려함과 근사해 보이는 프로그램들로 채워진 세속적인 방법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옛적 길”은 시시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며, 지루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과거 루터, 칼빈, 초빙클리프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그 시대의 교회와 사회의 타락과 부패를 바라보며 개혁을 이루어야 함을 깨달았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성경 안에서 참된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혁을 이루어 가며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길”, “진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회복도 소망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면서 놀라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번영과 동시에 종교적, 도

들의 불의함으로 인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파생합니다. 우리는 피상적이고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 삶)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우리에게 스스로 주님께로 돌아갈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는 하나님을

게 하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히 4:12). 이것이 말씀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기서 ‘운동력’이라는 말은 유명한 헬라어 ‘뒤나미스’라는 단어로써 ‘타고난 본질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더구나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며 모든 인간적인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이상 숭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 분명하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와서”(14:2)라고 말씀하셔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말씀을 통하지 않은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알게 된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온갖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개혁자들이 이루었던 “옛적 길”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여 지난 2007년부터 New York Bible Conference (NYBC)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마다 1월에 2박 3일간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말씀 성경회를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에서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4년째 되던 해에 성경 66권이 모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66권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중보의 기도자들이 세워졌으며, 부흥의 보발군들이 일어나 각자가 속한 곳에서 많은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삶을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휩쓸려가는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우매하여 우리 스스로 만든 우상을 신처럼 숭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가까이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회복 (Restoration)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를 이슬과 같이, 백합화와 백향목 같이 회복시키시고, 감람나무와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축복해주시길 것입니다. workman4yeshua@gmail.com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근본, 기본의 그자리가 바로 “옛적 길”

호세아 14:2

영적 타락과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으로 여기고 교만과 사치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심판과 멸망의 경고를 전하시며,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새로운 회복(restore)과 새로운 시작(new start)을 이루어 가야 하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의 이상 숭배와 죄악을 회개(Repent)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적도, 그 앞에 절한 적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 출세를 위해 내 신앙을 접고 하나님을 잠시 외면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악’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Restore)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롬 10:17).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과 우상에 쏠려 있는 우리의 관심을 바로 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탐하는 두 마음을 가진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앞드릴 때, 우리가 잡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가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지적인 지식의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Ministry Management Leadership 목회 경영 리더십 대학원

2023년 봄 학기 - 개강 2023년 2월 6일

모집과정

- MBA - Ministry Management Leadership
Doctor of Leadership : Ministry/ Mission Leadership
Ph.D. in Organizational Ministry Leadership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636) 327-4645. usa@midwest.edu
www.midwest.edu

“New Wave 새로운 물결” 선교적 접근

1. 팬데믹 상황과 4차 산업 혁명이 가져다준 새로운 환경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BC: Before Christ)과 오신 후(AD: Anno Domini)로 나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여전히 인간의 역사를 그 전과 그 후로 나눌 수밖에 없는 위대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요즘에 이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준 팬데믹으로 세상 학자들은 인간의 역사를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BC: Before Coronavirus)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After Coronavirus)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코비드-19는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과 변화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로 잘 알려진 Klaus Schwab은 2020년에 Thierry Malleret와 함께 (위대한 리셋: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코비드-19 이후의 세계 흐름과 국제 경제의 강력한 리셋의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모든면에서 리셋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선교에 있어서도 올바른 리셋의 방향을 잡고 그것을 실행해야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코비드-19가 가져온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면 소통”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나온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도 예견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속도와 정도가 이번 코비드-19로 엄청나게 가속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선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Steve Jobs는 2007년에 그의 야심작 아이폰을 세상에 처음 내놓으면서 “포노 사피엔스”(Phono-Sapiens)라는, ‘스마트폰 없이 살기 힘들어하는 신인류’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 인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통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간, “호모 커뮤니쿠스”(Homo-Communicus)의 인간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관

계를 맺기를 원하면서도 때에 따라 적당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세대에 대해 “세무니티족”(Separation + Community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인간은 비대면을 선호하면서도 연결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에서도 “스마로그형” 교육이 나오기도 했다. “스마로그”(Smalogue)는 스마트(Smart)와 아날로그(Analogue)의 합성어인데, 이것은 교육 콘텐츠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지만, 서로 만나서 질문하고 상담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앞으



김연수 선교사 SMI(스토리텔링사역연구소)대표 AGST-Pacific(아시아태평양선학원) 부총장 AETA(국제교육훈련연합) 부대표

로의 선교에도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다.

2. 급변하는 상황과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선교를 고민하는 우리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Jeff Bezos)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말하기를, “향후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지보다는 무엇이 변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어쩌면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과 급변하는 선교 상황에 예의주시하면서도 시대마다 상황마다 변하는 트렌드보다는 변하지 않을 가치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극(極)디지털 세대로 불리는 MZ세대(M세대: 밀레니엄세대, 1980년초-2010년초에 출생, Z세대: 1990년중-2000

년대초 출생)는 개인이 인플루언서(Influencer)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것은 바로 성경 이야기에 근거를 둔 신학과 선교에 관한 바른 글들이라고 생각된다.

요즘 들어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새로운 플랫폼 활동이 유행하고 있다. 요즘 세대가 아날로그 책을 잘 읽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책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휴먼 라이브러리는 사람이 바로 책이 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책이 되어 플랫폼에 시간, 장소, 핵

Thomas Wright는 기독교의 목적이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것은 “공적인 진리”라고 말했다. Craig G. Bartholomew는 개혁자들에게 의해서 체계화된 성경의 구속사적 접근이야말로 성경은 “하나의 펼쳐진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제공해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제공해 준다. 둘째로, 우리가 어떤 가

진 문화권에서 형성되었고 퍼져나갔다는 사실과 보편적인 문자 문화권 이전의 사회에서 이미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과 성례들에 의해 끊임없이 검증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복음전파에서 몇 가지 통찰력을 얻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야기로서의 복음 전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첫째로는 복음 이야기는 일차적으로 구전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구전적으로 전달될 때 훨씬 더 본래의 의도와 의미 파악에

지를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것들을 찾아내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이야기가 문자로 기록이 되면서 잠기게 되었던 비언어적 데이터에 담긴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회복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5. 이 시대에 맞는 복음 이야기의 전달자 - “성경 라이브러리”

우리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급변해도 절대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야기이다. 사람들의 교제 상황과 의사소통의 상황이 바뀌어도, 아니 앞으로 더 다르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해야 할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요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는 마음이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 라이브러리”가 되어 복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을 이야기로 이해하고 이야기 식으로 전달하게 되면 연령, 성별, 학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신학교육도 시킬 수 있다.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세대가 달라졌다고 외치면서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야기로서의 복음을 하나씩 의허감으로 우리 자신이 “성경 라이브러리”가 될 수 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성경 이야기를 골라서 전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 그 이야기를 공부하고 그 이야기를 완벽하게 암기하여 실감나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팬데믹 상황에서 살아남고 있는 선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신자가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werba@hanmail.net

팬데믹 상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교

2023 새로운 선교의 물결

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개인은 그 플랫폼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신을 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도서관에서 인쇄된 책을 빌리는 것 대신 그 사람 책을 만나서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 라이브러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로, 이야기로서의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성경 라이브러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해 제대로 된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한 인간으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움직이는 성경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3. 이야기로서의 복음

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에 관한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성경이 갖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셋째로, 그러므로 성경 이야기는 결국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세계관을 변화시킨다. 넷째로,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세계관의 변화와 함께 그의 삶을 변화시켜주게 된다. 다섯째로, 성경 이야기는 신앙인의 영성에 관련되어 있다. 성경 이야기는 결국 우리 영성의 실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4. 이야기로서의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할 것인가? “복음은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진리 위에 뛰어난 최고의 진리”이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이다. 복음 이야기가 구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에 그렇게 많은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그것이 일차적으로 구전적 전달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는 그래서 복음 이야기가 이야기 형태로 전달될 때 본래 이야기의 감정과 분위기와 뉘앙스가 비로소 살아난다는 점이다. 그것을 이야기로 전달하려고 한다면 그 대사나 대화에 들어 있는 뉘앙스와 감정과 분위기까지도 고려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경 이야기와 그것이 주는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로는 복음 이야기를 이야기로 전달하면서 그 이야기가 처음 전달되었을 때의 배경, 분위기, 내재된 감정 등을 고려함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 데이터가 어떤 것이었는

Advertisement for '기타지역 교회' (Other Area Churches) featuring a compass and map background. It lists various churches with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service times.

"New Wave 새로운 물결" 역사적 접근

2023년은 평양대부흥운동의 발원이라고 알려진 원산부흥운동이 일어난지 12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이다. 지금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너무도 중요한 길목에 와 있다.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 아픔과 고통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특별히 모이는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교회는 압력에 의해서 혹은 전염에 대한 우려로 모이기를 꺼려하면서 가장 힘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독 한국교회는 예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기독교 2천년의 역사 속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기독교가 이토록 예배의 자유를 침해당하며 극심한 고난을 겪은 때는 없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며 예배를 회복했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예배 참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일예배는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 분명 한국교회나 이인교회 아니 전세계교회들은 너무도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2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과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면서 주권적인 하나님께 나아가 할 것이다.

힘겹게 싸워야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의 선교가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 손쉽게 비대면으로 교인들과의 접촉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교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면서 인터넷 가상 공간에 기독교 콘텐츠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졌다.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도 놀라울 정도로 많아졌다. 인터넷교회도 여럿 등장했다. 하지만 경건훈련과 인격적 성숙을 생명으로 하는 신앙공동체가 비대면 가상 공간의 예배와 교제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너무도 한계가 있다.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 신앙은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대면예배 참석과 성도들과의

기독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을 이해할 때 크로노스(χρόνος)의 시간과 카이로스(καιρός)의 시간 둘로 이해한다. 크로노스는 보통 눈에 보이는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적인 시간을 지칭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시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니이까'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셨다. 여기 때와 기한이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이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카이로스는 86회나 나

3.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교회는 변하지 않는 말씀, 곧 구원의 진리를 변하는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교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누가 복음주의자인지 자유주의자인지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이것이다.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세상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하는 것이다. 20세기 현대주의의 대변자 해리 에머슨 파스틱에 따르면 자유주의자들은 변하는 세상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자들인 반면 복음주의자들은 변하지 않는 성경을 가지고 변하는 세상을 읽어가려는 자들이라. 급변하는 세상, 눈뜨고 나면 새롭게 전개되는 변하는 이 세상의 렌즈

4. 실추된 교회의 영광 회복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존 칼빈은 사도행전 주석에서 실추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성령 외에는 달리 길이 없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이 임했다고 증언한다. 사도행전이 증언하듯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이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도 선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들 가운데 놀랍게 임하셨다. 성령은 말씀의 저자이고, 말씀의 해석자이고, 중생과 회복과 부흥의 영이시다.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은 성령 외에 달리 길이 없다.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기

외의 고백은 참된 부흥이 임하는 곳마다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다. 오순절의 역사가 그랬고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그랬으며 기독교 2천년의 역사가 그랬다. 교회의 영광이 실추된 오늘의 현실에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성령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5. 한국교회여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나아가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위축이 되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을 가장 염원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태의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후의 코로나-19 이전 상태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설정한 것이지만 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4년 후 2027년이면 사도행전 이후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로 평가 받는 평양대부흥운동 120주년이다. 그 놀라운 평양대부흥운동의 발원이라고 할 수 있는 1903년 원산부흥운동 120주년은 바로 내년 2023년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부흥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하다. 패배주의가 우리 가운데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기독교 역사의 참된 부흥은 극심한 침체와 위기 속에서 일어났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움츠러들었던 축소지향적 부정적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이 땅에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경 해석자이시고, 부흥의 영이신 성령의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다시 부흥으로 나아가 할 것이다. 미국 1차 대각성운동의 주역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대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이나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하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는 부흥이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부흥이 임했다고 증거한다. 개교회이던 한 도시의 교회 공동체인 더 나아가 한 국가의 교회이던 기도 없는 부흥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 담대한 말씀의 선포, 철저한

(11면으로 계속)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박용규 목사 한국기독교사연구소 소장, 총신대 명예교수

교류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온라인예배는 절호의 찬스지만 훈련과 양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수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이지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이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는 일이 쉽지 않다. 이런 변화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훗날 정확한 평가를 내릴 것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는 이전과 이후로 대별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피부로 지금 인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점에서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전환기에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아가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 크로노스 시간을 넘어 카이로스 시간을 같이 보라

타날 정도로 신앙성경에 많이 등장한다. 지난 3년간의 팬데믹의 시간이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때 그 시간은 훈련과 연단과 도전의 시간이었다.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우주로 정복할 정도로 야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코로나-19 하나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마치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과 교만이 극에 달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해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를 깊이 절감하게 만들고 있다. 분명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은 그 사실을 피부로 느끼는 기간이었다. 모든 상황이 피조물 인간자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고, 성경의 진리는 상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킨다.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변하는 세상을 읽어야 할 수 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표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변하지 않는 진리로 돌아가 거시적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성경은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

독고 2천년의 역사가 증언하는 것처럼 제자들과 교회와 개인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였을 때 변화를 받았고, 권능을 받고 사탄과 세상과 죄를 이겼으며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개인의 각성이 사회각성으로 이어져 놀라운 사회변혁이 일어났다. 누가 증언하는 대로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은 말씀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나타났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는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고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 모인 이들에게 요엘서의 약속을 환기시키고 약속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성령께서 모인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며 회개했다. 담대한 말씀의 선포, 철저한

1. 급변하는 사회와 세상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후 사회와 문화와 경제 등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도 급변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백신을 여러 차례 맞아야 했다. 정치적인 변수들이 종교적인 상황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여론과 언론들이 특정 종교와 그들을 적폐와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발생했다.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목소리를 높였고, 교회는 순응의 길을 택했지만 여전히 비판의 중심에 섰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너무도 급변했다. 모든 영역이 그랬지만 유독 교회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변화와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and '서부(CA)교회안내'. Lists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한교회', etc., with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service times.

“New Wave 새로운 물결” 교육적 접근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방향으로 이끌었다. 비대면 사회를 위한 기술의 발전과 삶의 방식 변화와 더불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다. 대면 예배 금지는 마지막 때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를 준비하게 하였다. 더 이상 신앙에 관하여 교회와 사역자에게 우리 자녀를 맡기기가 할 것이 아니라, 결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인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해 보니, 자녀들의 설교와 찬양 및 기도하는 태도와 모습을 직접 보면서 생각보다 영적으로 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 언어에 더하여 세대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한 거리감이 생각보다 컸다.

코로나 이후 전체 교인 수의 감소 및 100명 미만의 교회의 숫자 증가, 그리고 신학교 재학생의 숫자 감소 등으로 대다수 교회들은 자녀들의 연령대 별로 전담 사역자들을 세우고 교회 교육을 하는 것이 어려워져 가고 있다. 특히나 한어 문화권인 담임목회자와 목회철학을 공유하는 영어 문화권 사역자를 찾는 것은 더 어렵다. 결국 전문 사역자의 부족과 영어권 사역자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와 전문 사역자가 전담하기보다는, 교회가 가정들을 품고 부모들을 훈련시켜 그들을 통하여 그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안이라 생각한다.

원래 성경에서도 아버지가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신명기 6장 6-7절에서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권할 것이며”라고 하셨다. 회당이나 성전에서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서나 실생활 속에서 수시로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예식을 통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선조들을 구원하셨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신앙을 전수하게 하셨다(출 12:27).

학교시스템처럼 주일학교에 보내서 교회 교육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18세기 미국에서 유래된 것이다. 공립학교가 세워지기 이전에 간단한 읽기, 쓰기와 인성에 교육에 더하여 신앙교육을 하였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최근 필자가 속한 그레이스미션 대학교에서 교육학 철학 박사 과정을 신선했던 뒤, 어린이들을 예배와 기도로 양육하는 프로젝트를 제안받아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세대가 통합하여 드리는 예

크리스찬 스미스와 에이미 아담치크가 2021년에 출간한 Handing down the faith(믿음을 물려주기)라는 책은 종교적으로 열심인 부모들의 신앙의 전수를 연구하였다. 이 책은 2014, 2015년에 이뤄진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불교를 열심히 믿는 미국의 부모들 215명, 그리고 비종교적인 부모 20명과의 심층 인터뷰와 미 전역을 대표하는 세 가지 설문조사들의 자료들을 가지고 신앙의 전수를 연구 종합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의 영향력은 1970년대 이후로 감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부모들의 자녀들의 종교적 정체성, 신념 및 실천은 함께 거주할 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십 년 혹은 종 종 평생에 걸쳐 미친다는 것이다.

제시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자면, 자녀들이 친구들의 말은 더 귀담아듣고, 교사의 말은 더 신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가 가장 영향력이 있고,

는 모습만 보여주기보다 의도적이고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신앙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4) 그 대화는 자녀 중심으로 하며, 5) 양쪽 부모가 다 계실 때 가장 효율적이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6) 조부모나 다른 친척들이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 부모와 정서적으로 거리감 있고 비판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부모의 노력이 실패하거나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또, 평상시에 부모와 자녀 간 질 높은 대화와 상호작용이

물려주려면 부모가 의도적이고 일관되며 적극적으로 참여 하되 손을 떼거나 위압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3) 부모의 말과 행동, 규칙과 의도하는 것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4) 부모와 자녀 간에 신앙에 관하여 대화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녀 중심 방법으로, 자녀가 질문을 하고 부모가 대답해 주는 형태이다. 한편, 5)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들을 종교적으로 형성하는데 특별히 중요하다. 양부모가 다 계신 경우 종교적 믿음과 실천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수된다. 그런데, 6) 조부모나 다른 친척들이 부모의 영향을 대체하거나, 강화해 주거나, 완화시켜주거나 때로는 뒤집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양쪽 부모가 있지 않더라도 보완이 가능하다. 이때 기술하는 노력이 정도를 넘어 너무 많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적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모가 종교적인 신념과 실천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작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교회와 가정으로 나눠서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교회는 회중을 예배자들로 훈련시켜서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예배를 사역자가 주관하고 회중이 참가하는 게 아닌, 회중이 주체가 되어 드리는 예배로, 모든 세대들이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앉아 예배하며 세대 간 신앙의 전수가 이뤄지도록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매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들어가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사랑하게 되어, 자신의 믿음을 길러가도록 해야 한다. 결국 믿음은 삶을 통해 경험되고, 증거되어야 산 믿음이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바쁘더라도 가정예배를 꼭 드리겠다고 다짐해 본다. 자녀들이 구경꾼이 아닌 인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지켜가야 하겠다. deanba@gm.edu



안송주 교수
그레이스미션 대학교 학부 교수학장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한 가정예배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 이루어 가야 할 부분”



배 (intergenerational worship)를 통하여 자녀들이 부모, 조부모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중 하나로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의 일상생활 속에 의도적으로 예배와 기도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면, 미국 10대와 젊은 성인들의 종교 생활에 가장 강력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들의 부모들의 종교생활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그들의 또래도, 미디어도, 청소년부 리더도 목회자도 아니고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삶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

그 영향력은 성인이 된 후에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부모들이 용기를 내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근거가 되는 것이다. 문헌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신앙의 전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와 자녀 간에 따뜻하고 애정이 담긴 관계를 맺고, 2) 권위있는 양육 스타일로, 3) 신앙을 삶에 실천하

이루어지는 것이 가르치려고 심어주려고 하는 내용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2) 권위 있는 양육유형은 자녀에게 기준 없이 무엇이든지 허용하거나, 무관심으로 대하거나, 엄격하고 권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어떤 행동이 기대되는지 말해 주되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유형을 말한다. 같은 종교를 믿도록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2023. Includes sections for '동부(NY,NJ)교회' (Eastern NY/NJ Churches), '하와이 및 북미 지역' (Hawaii and North America), and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Churches reaching the world). Lists various churches with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남가주교계 2023년 새해...기도로 막 올려

각 교회마다 특별새벽기도 축복집회 연다

남가주교회가 2022년 송구 영신예배로 2023년 새해를 시작했다.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LA기쁨의 교회(이희문 목사)와 12월29일부터 1월7일까지 ANC은누리

교회의 연말연시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신년 첫 주부터 2월11일까지 계속된다. 다음은 2023년 신년특별새벽기도(저녁기도) 일정이다. <박준호 기자>

일시	교회	시간	비고
12/27-1/7	LA기쁨의교회(이희문 목사)	5:30am	
12/29-1/7	ANC은누리교회(김태형 목사)	5:30am(토:6am)	
1/2-4	성화장로교회(이동진 목사)	7pm	새해감사 온마음예배
1/2-6	나침반교회(민경영 목사)	5:30am	
	남가주든든교회(김현인 목사)	6:00am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7:30pm	신년축복집회
1/2-7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	6am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	5:30am(토:6am)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	5am(토:6am)	
	남가주주님의교회(최현규 목사)	5:30am(토:6am)	
	대흥장로교회(김정훈 목사)	5:30am(토:6am)	
	베델교회(김한우 목사)	5am(토:6am)	
	사랑의빛선교회(윤대혁 목사)	5:30am(토:6am)	
	새생명교회(지성은 목사)	5:30am(토:6am)	
	LA연합감리교회(이정민 목사)	6am	
	오렌지중앙교회(유원선 목사)	5:30am(토:6am)	
	OC제일장로교회(김종규 목사)	5:30am(토:6am)	
	OC한인교회(남성수 목사)	5:30am	
	오렌지한인교회(피세원 목사)	5:30am(토:6am)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5:30am(토:6am)	은혜이슬 새벽부흥회
	인랜드교회(안환 목사)	5:30am(토:6am)	
	중현선교회(국윤권 목사)	5:20am	
	토크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	5:45am	
1/2-14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 목사)	5:20am	
1/3-7	나성금관교회(이석부 목사)	6am	
	포감사신교회(최경욱 목사)	5:30am(토:6am)	
	벨리주하나교회(오정택 목사)	5:30am(토:6am)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	5:15am	
	선한칭지기교회(송병주 목사)	6am	
	토크스선한목자교회(이승혁 목사)	6am	
1/3-2/11	산샘교회(윤석형 목사)	5:30am(토:6am)	
1/5-7	세리토스장로교회(박규성 목사)	5:20am(토:6am)	
1/9-14	나성한인교회(신동철 목사)	5:30am(토:6am)	
1/10-14	샌디에고소망교회(안관진 목사)	5:30am	
	토크스조은교회(김우준 목사)	6am	항암2주년 특별새벽기도



LA사랑의교회 성탄절 및 교회탄생 16주년 예배에서 유치부 학생들이 공연하고 있다(사진우측아래 타원안은 교회탄생 16주년을 축하하는 케익커팅을 김기섭 담임목사와 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

LA사랑의교회 성탄주일예배 및 탄생 16주년 감사예배

“영원한 소망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자”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성탄주일예배 및 교회탄생 16주년 감사예배가 25일(주일) 오전 9시30분에 열렸다. 김기섭 목사는 “오늘은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LA 사랑의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하다”며 “16년 동안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경환 목사 사회와 대략 청년, EM연합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정재현 장로가 기도했으며 성가대 찬양이 있었다. 이어 김앤드류 전도사가 ‘성탄의 희망(롬 8:37-3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전도사는 “우리가 성탄하면 선물을 나누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만 성탄의 가

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다. 그 소망은 우리가 절대 실망하지 않는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영원한 생일을 축하하는 주님을 붙잡고 사는 LA사랑의교회 교인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차세대 사역원 성탄축하발표 시간이 있었다. 성탄축하발표시간은 중고등부, 초등부1-3학년, 유치부, 초등부4-5학년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성탄축하공연이 있었다. 이어 성탄절과 교회탄생을 축하하는 케익커팅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기섭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선한목자교회 성탄이브 음악예배에서 참석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선한목자교회 성탄이브 음악예배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선물, 예수그리스도를 찬양”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 성탄이브 음악예배가 24일(토) 오후 7시에 열렸다. 임봉국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평신회 장로가 기도했으며 고태형 목사가 ‘구세주 오실 예언과 탄생(사 40:1-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고 목사는 “사람이 만든 음악작품 중에 헨델의 메시아가 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선물 생명의 예수그리스도를 찬양하고자 한다. 그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선한목자교회 연합성가대 & 챔버 오케스트라(지휘 김원재)가 메시아 1부 ‘예언과 탄생’을 불렀으며 소프라노 이지은, 엘토 조지영, 테너 오우영, 바리톤 채홍석이 함께 찬양했다. 메시아를 마친 후 전출연자들이 청중들과 싱얼롱 시간을 가졌으며 ‘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 밖에 한 밤 중에’를 청중들과 함께 불렀다. 이날 음악예배는 고태형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UMC 분리된다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가 연합감리교회(UMC)에서 분리된다. 본교회는 지난 12월18일 오후 1시에 실시한 교인총회에서 260명 투표 참가중 255명 찬성으로

UMC로부터 분리를 결정했다. 앞으로 3월 초에 열리는 특별연회에서 승인받고 3월31일 최종 분리가 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장신대학교 2023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2023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학위과정은 △학사: 신학, 사회복지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석사: 교역학, 교역학원목과정(한국어&영어), 교역학 전문코칭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코칭학, 결혼과 가족치료학, △박사: 선교학 박사(DIcs), 선교학철학 박사(Ph.D. in Contextual Studies), △Certificate과정: 전문원목과정(한국어&영어) 등이다. ▲ 문의: (562)926-1023

KCPC개혁장로회대학 학생모집

KCPC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총장 이정현 박사)는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신입생모집과정은 학사, 기독교교육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박사, 신학박사 등이다. 또한 편입생의 경우 타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 편입하는 목회후보자, 타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원하는 자들을 위한 편목과정이 있다. 원서마감일은 오는 1월30일까지 ▲ 문의: (310)749-0577, (626)675-8010

평강교회 담임목사 이취임식

금년 창립 42주년을 맞는 평강교회가 이장기 담임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제2대 담임목사로 송금관 목사가 취임하는 담임목사 이취임식을 1월 8일(주일) 오전 11시에 갖는다. 축하 화환 및 꽃다발은 정중회 사양한다고 교회측은 밝혔다. 평강교회 주소는 606 El Centro Street, South Pasadena, CA 91030이다. ▲ 문의: (818)915-0702, (213)393-9136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2023 복음세미나

달라스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는 2023 복음세미나를 ‘그리스도 몸인 교회,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매일 저녁 8시에 갖는다. 강사는 손상원 목사(DBU 성서학교수) ▲ 문의: (972)258-0991

워싱턴주 선교단체협의회 신년연합기도회 개최

워싱턴주 선교단체협의회는 오는 1월 5일(목) 오전 11시 웨더럴웨이 제일장로교회(담임 이민규 목사, 3225 S 288th Street Auburn, WA 98001)에서 2023 신년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서로간의 안부와 새해 계획들을 나눈다. 이날 기도회는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가 설교할 예정이며,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 워싱턴주, 한인단체들과 지도자들, 한인 교민들과 2세를, 이민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을 위한 기도회로 이어진다. 기도회는 시애틀, 웨더럴웨이, 타코마 지역 교회 연합회 회장 및 선교단체 대표들이 인도할 예정이다. 기도회에는 서은지 주시애틀 총영사와 한인단체장들도 참석하고, 기도회 후에는 웨더럴웨이제일장로교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오찬으로 새해인사와 덕담을 서로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 문의: (425)775-7477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9면에서 계속)

맺는 말

분명 오늘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교회는 위기에 직면했다. 그 위기는 어느 한 가지 원인이 밀려오고 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타개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지금까지 세상적인 방법론이 아닌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우리 모두는 급변하는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무도 세상은 변하고 있고, 과학은 어제와 다르게 발달하고 있으며, 첨단 기계와 프로그램은 미처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출시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은 물론 우리 사회와 세상이 너무도 급변하고 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을 통해 변하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교회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

둘째, 존 칼빈의 말대로 실추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부으심 외에 달리 길이 없다. 때문에 교회를 통한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위해 오순절 성령강림이 임한 것이다. 성령은 말씀의 저자이시고 말씀의 해석자이시고, 세상을 이기는 권능의 영이시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 셋째, 교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는 세상에

선포하는 곳이다.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고 동시에 변하는 세상을 잃어가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창조 이후 인간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달리는 직선적인 역사이다.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고백했다. 역사의 기원과 과정과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기계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넘어 보이는 시간 이면에 흐르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잃어가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넷째,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성령은 회복의 영, 부흥의 영이시다.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을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3년 원산부흥운동 12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점에 한국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여 이 땅을 고쳐 달라고, 이 땅을 부흥케 해달라고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부흥이 임하면 인간이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성령께서 단 몇 시간, 며칠 만에 하신다.

2023년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원년,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으로 나가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병들고 상처투성이의 이 땅이지만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희망이여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고 회복의 영, 부흥의 영을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여 나를 부흥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yonginduck@gmail.com



여명학교 학생들이 학교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한사마리아인 선교회와 월서연합감리교회

탈북자 자녀학교에 총1만5천달러 장학금 전달

선한사마리아인한인선교회(대표 김원기 목사)와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구진모 목사)가 금년에도 탈북자 자녀들이 다니는 한국에 있는 ‘여명학교’ 대학진학생들과 ‘우리들학교’에 총1만5천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주 여명학교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학교 관계자들과 장학생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표 김원기 목사는 한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4년제 대학교 혹은 2년제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과 재학생들, 그리고 우리들학교 2명의 재학생들에게도 각각 백만 원씩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김원기 선교회 대표 목사는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이의신 장로가 읽은 격려사를 통해 “여명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그리고 사회로 진출 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나는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맞이하기 전 대한민국 역사의 격동기에 태어났다. 국민학교 시절에는 6.25동란이 일어나 폭격으로 죽을 뻔 한 고비를 몇 번 넘기도 했고 학교가 폐허가 되어 산에서, 들에서, 그리고 마을 이곳저곳을 교실로 사용하면서 공부했다. 신학대학 시절에는 가정교사를 하면서 그리고 교내에서 일하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목사는 “군복으로 제대 후 미국 유학길에 오르면서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비행기표를 마련했다. 김포공항을 떠날 때 가진 돈이 80불이었다.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25불에 헤어 드라이를 사고 난 후 55불을 가지고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가 있는 텍사스 달라스의 공항에 도착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SMU에서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한인교회 그리고 선교감리사로 사역하고 은퇴했다”고 자신의 삶을 들려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추연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김원기 목사가 주축이 되어 창립된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와 월서연합감리교회는 지난 수년동안 여명학교 등 문교부가 인정한 탈북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을 장학금 등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지구한인목사회 2023 신년하례회

뉴욕한인목사회(회장 김홍석 목사)는 2023년 1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에 뉴욕늘기쁨교회(담임 김홍석 목사)에서 새해 첫 모임을 신년하례회로 모여 신년감사예배와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회장 김홍석 목사 646-287-7169, 총무 박희근 목사 917-254-0887

뉴저지지구한인목사회 2023 신년하례회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홍인석 목사)는 2023년 1월 9일(월) 오후 6시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새해 첫 모임을 신년하례회로 모인다. 신년감사예배와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njkaca@gmail.com

뉴욕 은혜교회 장년 사역 담당 전임 교역자(부목사) 청빙

뉴욕 리틀렉 위치한 은혜교회(담임 이상훈 목사)에서 함께 동역할 신실한 장년 사역 담당 전임(Full-time)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 건전한 개혁주의 신학교를 졸업한 자 (M. Div 소지자), 미주 한인 교회에서 장년 사역 경험자, 미국에 거주하면서 취업에 걸려사유가없는 자. 제출서류: 이력서(사진 및 가족 사항 포함), 자기소개서(사역 경험과 자기의 비전 포함), 신앙고백서, M. Div.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최근 1년 이내 설교 영상 1편 (CD, 동영상 파일 및 링크), 추천서 (추천자가 이메일로 직접 발송 요망), 제출 기한: 2023년 1월 31일

▲문의 및 서류 제출처: 718-428-1447, eunhaechurch2021@gmail.com

뉴욕동원장로교회 영유아부 사역자 청빙

뉴욕동원장로교회(담임 박희근 목사)에서 소명과 열정이 있는 영유아부 (Pre-Kindergarten) 사역자를 청빙한다. 예배는 한국어 혹은 영어로 진행되고, 영어로는 간단한 의사소통만 이루어지면 된다. 자격: 신학을 공부하고 유아교육 전공한 자 우대. (현직 유아원 교사), 혹은 신학은 배우지 않았으나 경험 많은 자 (간사), 한국어 설교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자. 제출서류: 사진 포함한 이력서 (세례 등 신앙경력 포함), 최종학교 졸업/재학 증명서(신학교) 교회주소: 21-01 124 ST. College Point NY 11356

▲문의: 박희근 담임목사 917-254-0887, heepark91@yahoo.com



출판기념 감사예배 후 기념촬영을 했다

박혜경 권사, '은혜에 흐르는 기적' 출판기념 감사예배

수익금은 한인 노숙인 쉼터구입 후원과 우크라이나 선교비로 기부

박혜경 권사(Holly Park)의 '은혜에 흐르는 기적'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12월 18일(주일) KCS(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열렸다. '은혜에 흐르는 기적'의 저자 박혜경 권사는 51년 전 도미하여 뉴욕 파크 웨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으며 1992년 RE/MAX 부동산으로 입문 후 4년 만에 RE/MAX 명예의 전당을 수상, 2005년 뉴욕주 RE/MAX #1 탐 수상, 평생실적공로상을 휩쓸었다. 2년 뒤 켈러 윌리엄스 랜드마크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였고 2009년에는 뉴욕 우먼센터 여성 리더십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2년 1월 켈러 윌리엄스가 퀸즈 탐 부동산 340에이전트에서 비로소 은퇴하며 신앙에세이 '은혜에 흐르는 기적'을 출판하게 되었다.

소프라노 박진원의 특송 후방지각 목사(더나눔하우스 상임교문)가 '도리어 섬기려고(마태복음 20장 28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러,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전하며 성탄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사평에 김길홍 목사(해외기독문인협회 전 회장), 광상희 권사(시인, 뉴욕 신문학)의 축사, 저자인사가 차례로 이어졌다. 박성원 목사(더나눔하우스 대표)의 광고 이준성 목사(뉴욕교회협의회 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혜경 권사는 '은혜에 흐르는 기적'의 모든 수익금은 한인 노숙인 쉼터구입 후원과 우크라이나 선교비로 기부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기사제공: 더나눔하우스)



49회기 뉴욕교협 임원

49회기 뉴욕교협, 연간 회기 내 사업일정 확정

1월 불우이웃돕기 및 신년하례회, 2월 세미나 진행예정

49회기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는 12월 21일(수) 오후 교협회관에서 임원 및 준비위원 모임을 가지고 회기내 사업일정을 확정했다. 신년 1월에는 불우이웃돕기가 진행되며, 1월 22일 주일에 신년하례(준비위원장 이창종 목사)가 진행된다. 2월에는 뉴욕교역자 연합회와 연합하여 박성규 목사(남가주주님세운교회)를 초청하여 세미나가 진행된다. 4월에는 부활절 새벽연합기도회(준비위원장 권계덕 목사)와 함께 김일태 부회장과 곽우천 부이사장 등이 준비하는 골프대회가 진행된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부동반으

로 서부여행이 진행되며, 지난해에 처음 열렸던 뉴욕선교대회(준비위원장 김경열 목사, 이종식 목사)가 예정되어 있다.

6월에는 6.25기념 음악회를 교협 부회장과 이사장 등 평신도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했다. 7월에는 할렐루야대회(준비위원장 박태규 목사, 이종삼 목사)가 진행된다. 8월에는 뉴욕장로연합회와 함께 타국교회를 개최하며, 9월에는 선교여행(준비위원장 허윤준 목사)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다. 50회기 정기총회는 10월 17일로 예정되었다.

(정리: 김재상 기자)



후원금 전달식 후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뉴욕빌보교회, 구제선교단체에 총 5만 달러 후원금 전달

뉴욕일월 활발히 사역하는 10개 구제선교단체들로 선정

뉴욕빌보교회(담임 박희열 목사)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12월 18일 주일 오후 2시에 뉴욕일월 10개 구제선교단체에 총 5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각 5천 달러의 후원금을 받은 단체와 대표는 디모데교회 훈련원(이용길 목사), 미얀마 선교(이민철 선교사), 더나눔 하우스(박성원 목사), 주님의 식탁선교회(이종선 목사), 미동부교계기아대책기구(박진하 목사), 뉴욕두리하나탈북민정년센터(김준현 목사), 뉴저지 선교사의집(백남걸 장로), 뉴

욕밀알장애인선교회(김자송 단장), 뉴저지밀알장애인선교회(강원호 목사) 등이다. 박희열 목사는 후원취지 설명순서를 통해 "공신력이 있고 활발하게 실제적으로 사역을 담당하는 단체"를 선정기준으로 삼았으며 5만 달러라는 거액을 지원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또한 "빌보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후원한 것이 아니라,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는 수준이다. 좋은 일에 힘쓰는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NYBC 2023 "버가모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New York Bible Conference (NYBC)가 2023년 1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2박 3일간 White Eagle Conference Center (Hamilton, NY)에서 "버가모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12)"라는 주제로 열린다. NYBC는 성경 말씀을 통해 뉴욕주 지역에 흠어져 있는 한인들의 영적 부흥과 지역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고 복음을 회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사역이다. 매년 1월에 2박 3일 동안 Albany, Binghamton, Buffalo, Ithaca, Rochester, Syracuse를 중심으로 약 2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모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핵심을 가지고 "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라는 모토로 집회를 계속해 오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비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진행해 왔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교회"를 주제로 진행 중이다.

이번 집회의 성경 주제별 강사는 창세기 (2): 하홍표 목사(코네티컷교회), 룯기: 김민철 목사(버팔로새소망장로교회), 호세야: 지용주 목사(시라큐스한인교회), 요한복음: 지수향 전도사(시라큐스한인교회), 디도서: 문영범 목사(올바니 한인장로교회)이다. 이번 집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www.nybc.life) 등록이 가능하다.

▲문의: 315-474-8346, newyorkbibleconference@gmail.com (정리: 김재상 기자)

각 교회마다 기쁨이 가득한 '성탄축하'

모든 세대와 민족이 기쁨으로 성탄축하예배

성탄절을 맞아 각 교회에서는 구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탄축하예배를 12월25일(주일) 각각 드려졌다.

△뉴욕센트럴교회는 'Happy birthday Jesus!'를 부르며 온 성도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나침은 이리하니라 (마 1:23-25)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성탄절이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며 이 성탄절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주일학교 자녀들의 축하예배 순서로 진행됐다. 자녀들의 축하시간을 가진 후 자녀들을 키우느라 고생한 부모님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박수를 선사했다. 이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연상3고개 퀴즈의 시간도 가졌다.

△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예배에서 이종식 목사는 "코비드 이후 3년 만에 온 교회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말하며 "용기를 내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십시오 (롬 1:16)"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때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용기내어 작게나마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연합찬양대의 칸타타와 교육부 및 오케스트라의 발표 시간을 가졌다. 중등부는 헨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에 맞추어 '왕의 왕~ 주의 주~'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예수님 생신 축하해요 왕의왕"이라는 글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KPCB Youth Orchestra는 그동안 연습을 하고 성탄절인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주했다.

△ 퀸즈장로교회는 다민족

크리스마스 연합 가족예배를 드렸다. '있을 곳이 없음 (눅 2:1-7)'의 제목으로 다민족과 교역자들이 성극을 준비했다. 이 성극을 통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고백의 시간을 가졌다. 성극에서 목자 역할을 한 김성국 목사는 "잔치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저 낮은 곳에 있던 목자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모든 회중은 "네"라고 외쳤다. 이어 러시아어권예배(송요한 목사), 중국어예배(첸웨이 목사), 영어예배(김도현 목사)의 메시지도 전했다. 이어 3부로 나뉘는 예배는 영아유아유치부, 중국어 찬양대, 유초등부의 특별 찬양 순서도 진행됐다.

△ 퀸즈한인교회는 성탄절 단일예배를 드렸다. 설교는 '최고의 선물 (마 2:9-11)'이라는 제목으로 송비전 목사가 전했다. 송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을 아직 못 받았다면 오늘이 바로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바라며 인류 최고의 선물 교환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아유아유치부의 울동찬양과 초등부의 합창 및 뮤지컬(CHECK OUT THAT STAR), 중고등부의 워싱턴(SHACKLES), 예루살렘찬양대의 칸타타(THE STORY)가 진행됐다. 모든 순서 후 김바나바 목사의 인도로 서로에게 "메리크리스마스"를 전하며 축복의 시간을 가진 뒤 서로 손을 잡고 합심기도로 마쳤다.

(모든 성탄축하예배는 유튜브 브로 시청할 수 있다.)

(홍현숙 기자)



뉴욕센트럴교회 교육부 멤버들이 찬양하고 있다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중등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있을 곳이 없음' 성극을 하고 있다



퀸즈한인교회 초등부의 합창 및 뮤지컬을 하고 있다



49년만에 낙태 합법화 뒤집은 미국...

한국, 생명 운동에 힘쓴 교훈 본받아야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었다. 대법원판결이 나온 뒤 미국의 50개 주 중 14개 주에선 낙태 금지가 발효됐고 다른 주들도 이를 추진하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낙태법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낙태 합법화를 뒤집은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교회가 생명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프로라이프(생명존중) 연구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RC)가 발행하는 웹진 '위싱턴 스탠드'는 지난 21일 '낙태

합법화 판례 뒤집은 미국이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조이 스타크 바우어 'FRC 인간존엄성센터' 정책연구원과 데이비드 클로슨 'FRC 성경적세계관센터' 디렉터가 썼다. 이들은 "미국 사례는 낙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판결을 뒤집는 데 교회의 역할이 컸다"며 "한국교회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가장 작은 생명을 위해 연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낙태율 1위다. 이런 오명을 벗으려면 한

국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내 프로라이프 전문가들도 기도회 등을 통해 교회가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일깨우고, 교단 차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사역도 확대해야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재훈 목사)와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지난해부터 생명 존중을 주제로 기도회, 예배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교회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 기독교 연합 기관, 시민단체들의 협업 필요성도 제기했다.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는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는 "국회가 낙태 관련 입법 개정을 하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1인 시위, 릴레이 기도회 등에 나서면 좋다"고 했다.

이봉화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상임대표는 "프로라이프 단체들은 교회에서 생명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며 낙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며 "입법 개정에도 시민단체들이 치밀하게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생선교회, 아프리카 120곳에 캠퍼스 개척

2011년부터 'A6프로젝트' 28개국에 400여개 캠퍼스 세워

한국대학생선교회(CCC·대표 김장생 목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10개국에 120개 캠퍼스를 개척했다고 26일 밝혔다. CCC는 지난 12일부터 닷새

간 아프리카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서 '캠퍼스 미션 아프리카 서밋'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서밋에는 19개국에서 51명의 캠퍼스 사역 책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0년간 토고와 콩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한국CCC의 캠퍼스 개척 프로그램인 'A6프로젝트'의 결실을 보고했다. 또한, CCC 캠퍼스 사역 철학과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CCC는 2011년부터 'A6프로젝트'를 통해 28개국에 400여개 캠퍼스를 세웠다. 김장생 목사는 "아프리카는 어느 대륙보다 선교 열기가 뜨겁다"면서 "아프리카가 가난하고 힘든 곳이라는 이유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새해 120돌 맞는 하디 '영적각성' 이자' 기감, 벽두부터 특세

"회개 역사가 부흥 역사로" 전국서 1~7일 기도

때는 1903년 8월이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원산에 모여 기도회와 성경공부 모임(성경

회)을 열었는데 그중 최고참이던 한 선교사가 설교자로 나섰다. 한때 이 남자는 설교 도중

모실 방이 있습니까'란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삶은 낮아짐과 섬김, 희생 그 자체였다'며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한평생 겸손의 삶, 낮아짐,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교회에 성탄의 기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온 인류에게 사랑과 구원의 빛을 주셨다"며 "한국교회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했고 역사의 고비마다 용기를 불어넣어 줬다"고 말했다.

제협력재단, (새로로벌호프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1호 밤차'는 지난달 4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신안산대에서는 프로보노국제협력재단 등이 주관하는 '청년대사' 2기 출범식도 열렸다. 청년대사는 한국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게끔 돕는 프로젝트다.

우크라 난민 돕는 희망밥차 2호 달린다

한국 온 피란민에 식사·구호품



한국교회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돕기 위해 만든 '희망밥차' 2호가 활동을 시작했다. 희망밥차 2호는 전쟁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상대로 식사와 생필품 등을 제공하게 된다.

지난 22일 희망밥차 2호가 공개된 장소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신안산대학 해외긴급구호물류센터였다. 희망밥차는 검은색 승합차 후미에 트레일러가 설치된 형태였다. 이 차량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피란민, 특히 한국에 들어와 인선, 총남

아산, 광주 등지에 머무는 이 나라 출신 고려인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희망밥차 프로젝트는 국민일보와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 폴란드적십자사, (새)프로보노국



참석 인원 제한 없이 전국 교회서 예수 탄생의 기쁨 나눠

3년 만에 온가족 연합예배·성탄절 칸타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3년 만에 참석 인원 제한이 사라진 첫 성탄절인 25일 교회마다 온 가족 연합예배와 성탄절 칸타타, 유아 세례식 등을 통해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

을 나눴다.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도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를 띠며 성탄 인사를 나눴다. 폭발이 내린 지역은 성탄절을 앞두고 제실작업을 하며 예배를 준비하기도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앞 광장은 예배에 참석하려는 이들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이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오전 11시 3부 예배 때는 1만 2000석 규모의 대성전을 비롯해 부속 성전까지 2만석이 모두 찼다.

이영훈 목사는 이날 '예수님

Candidacy Qualification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Exam Subjects

- a)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Isaiah 52:13 - 53:12
- (2) NT Exegesis Text : Hebrews 10:19 - 25
- (3) Thesis Topic : Write about the Reformed Church in the Post-Pandemic era - 'Metaverse and the Lord's Supper'
- (4) Sermon Text : O.T- Amos 8:11 - 14, N.T- 2 Timothy 4:1 - 5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KisungSon-OTExegesisPaper.pdf)
 -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3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3.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3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7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3-26, 2023).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22(Mon)~23(Tue), 2023
- b) Place :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Vice Moderator Rev. Seoung Kook Ki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3.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22-23, 2023) through Rev. David H. Park
-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David H. Park
Address :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U.S.A
Cell : (917) 254-0887 E-mail : heepark91@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Kisung Son (703) 725-6468 663927@gmail.com
-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H. Park (917) 254-0887 heepark91@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홍기표 목사
서 기 : 안병권 목사
고시부부장 : 손기성 목사
고시부서기 : 박희근 목사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하나님께 말김 (삼상 24:1~7) 찬 406장

원수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수갚는 권한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되갚아 주고 싶은 복수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 12:19)

화 감정을 통제하기 (삼상 25:1~31) 찬 300장

화가 많이 난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나발은 미련하여 그렇게 행동한 것이니,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나발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오려고 했던 사실을 듣고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후에 죽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대서 우리는 감정이 요동칠 때는 아무 결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나발에 대하여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나발을 죽일 것을 결정합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비극적인 결정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아무 결정도 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 선택의 기준 (삼상 26:1~12) 찬 240장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만 사울 머리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하갈라 산 건너편 산꼭대기로 가서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내가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사울은 다윗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은 각기 그들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사울을 죽이고 자유를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선택의 기준입니다.

목 그럴듯해 보이는 수렁 (삼상 27:1~12) 찬 259장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점점 수렁에 빠뜨립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망명을 갑니다. 아기스의 그늘에서 사울에 대한 염려 없이 살아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아기스가 제공 하는 성읍에서 아기스의 기분을 맞추며 살아 갑니다. 그러는 동안 다윗의 삶은 점점 죄의 수렁으로 빠집니다. 약탈하면서 먹고사는 도

적 때가 되었고, 날마다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기스의 환심을 샀다. 결국 자기 형제(유다 사람들)를 칼로 죽여야 할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선한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더욱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삼상 28:3~25) 찬 326장

성도가 무당에서 점치러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사울은 마음이 너무나 급한 나머지 점을 치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저지른 많은 잘못 중에서 무당을 찾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쁜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대상 10:13-14).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상을 찾는 것을 싫어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전 10:13-14)

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삼상 30:1~6) 찬 342장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하여 약탈과 방화를 저지르고 부녀자들을 잡아간 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다윗을 원망하며,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지도자(교회 안에서 목사, 전도사를 포함한 교역자들과 구역장, 사역 부장 등)는 함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평과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음악 이야기(26)

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영국 영어사전 콜린스가 2022년 한 해를 돌이키며 "permacrisis (영구적 위기)" 라는 하나의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콜린스 측은 "많은 사람에게 2022년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요약하는 단어다"라고 말하면서 "브렉시트, 코로나19, 기후 변화, 정치적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을 겪은 후 사람들은 현재 불확실한 일상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이로운 주의 사랑이, 나를 돌아보는 사랑의 눈동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환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1서 4:9-10)

이런 위기가 그 수위를 높여가는 오늘날, 또 하나 사회를 힘들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게 하는 무서운 정신적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리 증후군 (Ripley Syndrome)"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은 심각한 성격 장애로 자신의 모습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한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탄로 날까 봐 점점 성공하는 일반 거짓말쟁이들과는 달리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은 자신이 한 거짓말을 완전하게 믿고 있다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결국 이것은 가짜 인생을 살게 만들게 되면서 이 리플리 증후군의 심각성이 점점 더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독생자를 보내 주셔서 그 사랑의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2022년 한 해의 단어인 'permacrisis'(영구적 위기)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 몰려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리플리 증후군 같은 정신적 질병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질병으로 사회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사회를 지내는 가운데 지난 몇 주 동안 변함없이 온 세계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 분위기가 오색하게나마 머리를 들어 울리며 온갖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필자가 지난 번 아르헨티나 연주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칠레 산티아고를 잠깐 경유하게 되었는데 유난히 무더운 날씨 가운데 공항 터미널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루돌프 사슴 코는 등 크리스마스 케를의 멜로디들이 제게는 너무 초라하게만 들려지는 것은 웬일인지요? 또한 여기저기서 메시아 연주를 알리는 광고, 그리고 그 연주들을 통해 분명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며 축제 분위기를 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왠지 예년같지 않은 하나의 무거운 추가 무언가를 누르고 있어 축제 분위기를 다운시키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웬일인지요?"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 1898-1986)는 그가 쓴 책 '기초와 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망설임과 실수와 온갖 실망과 잘못된 출발을 통해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해 진리에 대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와 잘못을 되돌아보 진정된 신앙을 고수하며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음악 작곡가 크라이즈데일(David Clydesdale 1954 -)가 쓴 크리스마스 칸타타 더 킹(The King)의 서곡에서 표현한 곡을 소개하며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할 중요한 진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입니다.

체스터턴(Gilbert Keith Chesterton 1874-1936)은 그의 책 정통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미치광이가 되는 일은 쉽다. 이단이 되는 것도 쉽다. 현시대를 따라가는 것은 언제나 쉬운 법이다. 진정 어려운 것은 자신의 것을 잃지 않고 지키는 일이다. 나는 하늘의 마차가 천둥소리를 내며 시대를 가로질러 날고 듯한 이단들이 배를 깔고 엎드리고 이성적인 진리는 비틀거리면서도 똑바로 서 있는 환상을 보았다."

그리스도 탄생의 신비를 표현하기에 앞서 서곡을 통해 크라이즈데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를 크게 두 가지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장엄한 하늘, 무수한 별들이 오색빛을 발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천지 창조의 신비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사회는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을 비틀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은 예전보다 더 혼탁해져 가는 사회속에 그 수위가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 앞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과 같이 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년을 맞이하여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며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를 마음에 담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치욕의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안위하시며 지키고 계십니다.

모두들 희망으로 가득 넘치는 신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iyoon@wmu.edu

www.rptseast.org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2023년 봄학기 개강부흥회·강의

개강부흥회: 너를 부르신다 (마태복음 4:19-20)
2023년 1월31일(화)-2월2일(목) 오후8:00

Th.M 설교학 강의: 현대 내러티브 설교의 철학과 기법
2023년 1월 31일(화)-2월3일(금) 오전 9:00-오후4:00



권호 목사
한국 합신대 교수, 본인이 살아있는 설교 공동대표
M.Div. Chong Shin Theological Seminar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Ph.D.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임도균 목사
한국 침신대 교수, 본인이 살아있는 설교 공동대표
M.Div.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Th.M.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h.D.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복음의 알곡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제 출 서 류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 ②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 ③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④ 신앙고백서 1부
- ⑤ 명함판 사진 2매
- ⑥ 입학 전형료 (\$30)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접수마감: 2023년 1월27일(금) 오후6시
원서교부처: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입 학 시 험: 2023년 1월28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2시
개강부흥회: 2023년 1월31일(화) - 2월2일(목) 오후 8시
문 의 처: 학감 정기태 목사: 917-733-7387
행정실장 김신경 전도사: 646-708-1101
사무실: 718-463-7163
주 소: 143-17 Fl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rptseast.org

동부개혁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2023년 한국교회 목회 중점 사항, '현장 예배'와 '소그룹'!

목회데이터연구소, 현장예배와 효과적인 소그룹 전략이라 밝혀

한국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넘버즈 169호”를 통해 목회자들의 내년도 목회 중점 사항을 통계로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동 연구소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한국교회의 문화와 목회 방향성을 바꿀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현재도 목회자들은 내년도의 불확실성과 시대 환경 변화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내년도 목회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목회자들은 내년도에 어떻게 목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역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 이번 조사에서 목회자들에게 내년도 목

회 중점 강화 사항을 질문했는데, 목회자들은 ‘현장 예배 강화’와 ‘소그룹 강화’를 꼽았다. 현장 예배는 공동체성 회복과 교회 소속감 강화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전략이라 한다면, 소그룹 전략은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에 부는 새로운 흐름(트렌드)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한인교회들이 2023년 목회 계획 수립과 설정을 위해, 이러한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현재 주일 예배 방식, ‘온오프라인 병행’ 중간 추세!

현 주일 예배 방식을 묻은 결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동시에 드린다’가 교회 10곳 중 6곳 이상(6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장 예배만 드린다’ 27%, ‘현장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설교 영상만 올린다’ 9% 등의 순이었다. 50명 이하 소형교회의 경우 아직까지 절반 가까이 현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23년 목회 계획 중점 강화 사항 (1+2순위, 교회규모별, 상위 5위, %)

교회 규모별		현장 예배 강화	소그룹 강화	성인 성도들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전도와 선교 강화	다음세대 교육 강화
		50명 미만	44	33	30	30
50-99명		42	50	31	19	24
100-499명		36	37	24	33	30
500명 이상		31	17	35	35	35

지난 4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현장 예배만 드리는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온오프라인 병행 예배 형식이 다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형식의 예배가 점점

정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온라인 사역, 온라인 예배보다는 온라인 성경공부/소그룹을 강화하겠다!

내년도 온라인 사역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없다’는 응답이 58%로 ‘있다’ 42%보다 더 높았다. 다만,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의 경우 이보다 작은 규모의 교회보다 온라인 사역 강화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50명 미만 38%, 50-99명 44%, 100-499명 39%, 500명 이상 59%)

목회자들은 내년도(2023년) 목회 계획에서 어느 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기 원할까? 이에 대해 ‘현장 예배 강화’(40%)와 ‘소그룹 강화’(36%)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인 성도들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29%, ‘전도와 선교 강화’ 29% 등의 순이었다.

▲대형교회는 주요 사역 끌고 루, 소형교회는 선별적인 집중화 전략!

내년도 목회 계획의 중점 강화 사항을 교회 규모(장년 출석교인 수)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 예배, 다음 세대, 전도/선교 등 끌고루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100명 미만 소형교회의 경우 현장 예배나 소그룹 등 선별적으로 집중화하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내년도 목회 중점 강화 사항, ‘현장 예배’와 ‘소그룹’!

불확실한 미래 그러나...

(2면에서 계속)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대부분의 동맹국을 무임승차자로 여겼던 트럼프 때와는 달라진 점이다.”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미국이 동맹국들과 사이의 연결이 강해지길 원한다고 본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 상황을 민주주의와 독재 정권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의 일부로 보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런 조각들을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나토는 상호 방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시아와 미국의 동맹은 공동의 계획과 훈련이 거의 없는 양자 방위 조약이다. 미국은 일본·한국과 3차 미사일 방어 훈련을, 일본·호주와의 해상 훈련을, 일본·호주·인도와는 다각적인 쿼드협력 등을 꾀한다.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서로 연결하는 몇 가지 줄기도 있다. 오커스(AUKUS)협정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호주에 핵잠수함을 지원하기로 했고,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동참했으며, 유럽 국가들은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군함을 보냈다. 이스라엘, 인도, 아랍에미리트는 ‘12U2’로 묶이고 이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과

몇몇 아랍 국가들이 아브라함협정의 산물로 그룹을 이루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동맹에서 ‘대만’과 ‘인도’를 약점이라고 본다. 대만은 “침략의 위험이 가장 높지만 미국의 공식 동맹 네트워크에 잘 통합되지 않아서”, 인도는 “러시아와 군사적 유대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는 가장 큰 약점은 “미국의 우방국들이 더욱 긴밀하게 결속할 수 있는 무역 전략이 없다.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나 보호무역주의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하는 유력한 분쟁지역은 아시아에 몰려 있다. 일단 대만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대만 탈환은 중국 공산당의 신성한 목표다. 대만은 중국이 동아시아 전역과 서태평양에 전력을 투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과 달리 무모하지 않다. 경제 제재를 중국이 견딜 수 있는지 입증할 시간도 필요하다.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중국은 대만 대신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주변에서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한다.

북한도 이코노미스트가 선택한 분쟁지역 중 하나다. 2023년이 끝나기 전에 핵실험을 실행할 것이라고 본다. 이코노미스트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채 독재자 앞에서

세계의 선택지가 얼마나 적은지 알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벌어지는 히말라야의 국경 분쟁은 2023년 아시아의 잠재적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 이미 2020년 양측에서 24명의 군인들이 죽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나렌드라 모디 인도는 인도가 산에서 우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양측이 국경에 지은 새로운 전략 군사 도로를 둘 사이 완충 지대를 침식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수소 시대가 이번에는 정말 도래할 수 있을까. 이코노미스트는 “수소는 이전에 헛된 기대를 준 적이 있다. 20년 전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은 연료전지 승용차의 꿈을 좇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낭비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

일단 철강 같은 중공업에서 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화학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이코노미스트는 “탄소 배출에도 도움을 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격이 급등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수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는 2023년에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통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들은 지출을 줄이

게 되고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마련이다. 신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줄어든다. 정부도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보다는 일단 에너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화석연료 공급을 우선시할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수소를 추동하는 가장 큰 힘은 미국의 정부 지원금이다. 실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그린수소 프로젝트에 대해 1kg당 3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유럽과 달리 미국의 수소 정책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말한다.

‘보복관광’은 억눌려 있던 수요가 폭발해서 생긴다.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60% 증가한 해외 관광객은 2023년 30%가 더 증가해 16억명으로 늘어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19년의 18억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신 2023년 예상되는 관광 수입은 2019년 1조4000억달러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물가를 올려놨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등은 여행업의 회복을 꺾어 놓고 있다. 원래 코로나19 유행 전 10명의 관광객 중 1명은 중국인이었다. 이들 중국인 여행객의 숫자는 2023년 5900만명으로 예상되지만 2019년 1억5500만명보다는 훨씬 줄어든 숫자이다.

2023년 빅테크 기업들이 강하게 밀어붙일 분야는 두 가지다. 이코노미스트는 “하나는 가상(VR)

및 증강현실(AR) 헤드셋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메타버스다. 2차원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을 이제는 3차원의 몰입감 있는 게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이들은 본다”고 내다봤다.

시장조사업체인 IDC의 추산에 따르면 2021년 헤드셋은 약 1100만대가 팔렸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Meta)가 전체 매출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 메타는 지난 10월 11일 최신 헤드셋인 메타퀘스트 프로를 출시했는데 가격이 1499달러(약 198만원)이다. 다만 2023년에는 이보다 더 저렴한 헤드셋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가 잠식하고 있는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경쟁자도 많다. 애플이 2023년 첫 AR·VR 헤드셋을 출시할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소니는 2016년 플레이스테이션 VR 헤드셋을 출시해 이미 500만대 이상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2023년에 업그레이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메타의 야망은 헤드셋 생산을 넘어 VR 사용자가 거주할 수 있는 가상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021년 ‘페이스북’에서 바뀐 ‘메타’라는 새 이름은 마크 저커버그 CEO가 발표한 메타버스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이다.

이후 270억달러 이상을 이 아이디어에 투자했고 사용자를 위한 가상공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애

널리스트들은 메타의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에 회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뛰어난 경쟁사들도 비슷한 야망을 갖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부터 광고에서 은행까지 기존 산업들도 뛰어들었다. 그러나 가장 앞선 곳은 비디오게임으로 이미 수십 년 동안 가상 세계를 판매 온 경험이 있다.

협동도 이뤄진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2년 10월 윈도 운영체제와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엠, 엑스박스 게임 콘솔용으로 작성된 게임 등을 메타의 가상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리컨밸리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미 상호 운용 가능한 기술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메타버스 표준 포럼(MSF)에 가입했고 한 곳에서 만든 아바타가 다른 기업의 가상세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VR·AR 또는 메타버스가 정말 컴퓨팅의 미래인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회의론자들은 이런 생각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반면 애플이 뜬금없이 스마트폰을 발명하게 아니다. 블랙베리 폰 등 경쟁사들이 수년간 연구해온 공식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센트럴 메모리얼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 NJ: 리지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25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김현인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el.(213) 481-2779
www.srcla.org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용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

뉴저지한길교회
담임목사: 이병준
20 Arthur St. Ridgefield Park, NJ
Tel.(201)615-14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el. (917)862-0523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인환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김순관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Cell.(213)745-9191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323)-737-3009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el. (714)646-9259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310)325-402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